

HEALTH & WELFARE REVIEW

보건복지연구

Vol.10 No.1 / December 2025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ORIGINAL ARTICLE

- 1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 교육을 위한 대조분석에 근거한 음운비교
임 운
- 13 한국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 방식의 변화: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난민, 다문화자녀를 중심으로
권영은 · 김정은 · 김윤서 · 최예원 · 이소훈 · 김규찬
- 27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제도화와 사회서비스 제공
박수지
- 3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욱 · 서솔희 · 조아현 · 이남경 · 박수빈 · 유송이 · 장수정
- 49 자존감과 학업성취에 있어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가윤 · 김상연 · 허만섭
- 59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행욱
- 67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덕연 · 이현수 · 김윤서 · 정세림 · 신유정 · 최선하
- 77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루다 · 김현정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 교육을 위한 대조분석에 근거한 음운비교

임 운(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또는 국제화 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하여 대조분석 차원에서의 전이의 현상을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현상에 기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대조분석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습의 용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학습자에게 학습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목표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사의 이중언어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이중언어, 한국어 발음, 자연스러운 발음, 대조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총인구 중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거주자가 5.2%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거주자 중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거주자가 5%를 넘어가는 경우에 그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증가로 인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한국어의 중요성과한국어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언급할 필요성이 없으며,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에서 출발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어교육의 중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경우에 있어서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한 대치 연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것도 현실이다. 자연스러운 발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절음, 초분절음 그리고 후어휘음운적 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 학습하여 발화할 때, 원어민이 학습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학습자가 원어민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국어와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음소상의 차이, 음운상의 차이, 운율상의 차이와 음성음운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김기섭, 1993).

이러한 음소상의 차이, 음운상의 차이, 운율상의 차이와 음성음운의 구조 차이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외국어 또는 제2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 있다.

Chastain(1971: 237)은 발음 지도 단계를 “초급단계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대신,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규칙에 있어서보다는 뜻의 전달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초급단계에 있어서 적절한 발음지도는 분절음소, 간단한 발화를 위한 서술과 질문, 그리고 강세와 리듬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중급과 상급 단계의 발음지도는 복잡한 문자의 이음과 억양, 그리고 모국어 화자가 희노애락을 표시할 수 있는 정의적 장치 등의 능력 배양하기까지를 포함한다.”와 같이 주장하였다. Chastain(1971)의 초급 단계에서는 분절음과 강세와 리듬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중급과 상급 단계에서는 복잡한 문자의 이음과 억양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분절음의 학습, 초분절음의 학습 그리고 후어휘음운론(Postlexical Phonology)적 발음의 학습을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Ladefoged(1993)는 원어민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의 발화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발음으로 취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약화, 탈락, 축약, 연음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강약에 의한 리듬이 있게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후어휘음운론적 음운 현상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약화, 탈락, 축약, 연음 등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강세에 의한 리듬이 나타나지 않거나, 후어휘음운론적 음운 현상을 알맞게 발음하지 못하면, 원어민에게는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일어나는 분절적, 초분절적, 어휘 음운론, 그리고 후어휘 음운론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현상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가르치고 위한 방법으로 대조가설이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 현상

발음의 표시 차원은 <표 1>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그 언어에 내재해 있는 기저형(Underlying Form) 차원과 어휘 규칙(Lexical Rule)이 적용되어 어휘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적 음운적 표시(Lexical Phonological Representation) 차원 그리고 후어휘 규칙(Post-lexical Rule)이 적용된 체계적-음성적 표시(Systematic Phonetic Representation) 차원이다. 마지막 차원은 체계적-음성적 표시를 수치(scale value)로 나타낸 추상적인 음성 표시의 차원을 벗어난 물리적, 음향음성적 표시(Physical Acoustic Representation) 차원이다(Jensen, 1993: 27).

이러한 표시 차원의 근거가 되는 어휘음운론, 후어휘적인 운율층위이론(Prosodic Hierarchy)과 음조단위(Tonal Unit)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음성적인 발음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들 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상 차이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음성적인 발음 변화에 연계하여, 이를 물리적-음향적 수치로 표시하기 위한 음향음성학의 일반 연구를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의 근거로 제시한다.

1. 분절음적 음운 현상

어휘음운은 음운규칙에 의하여 도출되고, 이것은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추상적인 발음 표시와 어휘음운적 규칙에 의하여 음운현상(phonological phenomena)으로 표시된다.

영어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음은 성대의 진동 여부에 의한 유성성(voicing), 조음(articulation)의 위치와 조음의 방법, 그리고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s)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조음 방법에 의하여 파열음(plosive 또는 stops), 마찰음(fricative), 파찰음(affricative), 측음(lateral), 비음(nasal), 근사음(approximates)으로 구분된다. 조음 위치에 의하여 양순음(bi-labial), 순치음(labio-dental), 치간음(inter-dental), 치경음(alveolar), 구개치경음(palato-alveolar), 구개음(palatal), 연구개음(velar), 그리고 성문음(glottal)으로 나눌 수 있다.

SPE(Chomsky &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의 변별 자질은 주요 부류자질(major class features), 조음방법 자질(manner of articulation features), 조음위치 자질(point of articulation features), 바탕자질(source features)와 운율자질(prosodic features)로 대별하였다. 주요 부류자질은 자음성(consonantal), 공명성(sonorant), 음절성(syllabic) 등이다. 위치 자질은 관상성(coronal)과 전면성(anterior), 고위성(high), 저위성(low), 후설성(back), 원순성(rounded), 분산성(distributed), 비음성(nasal), 측음성(lateral) 등이 있다. 방법자질은 지속성(continuant), 지연방출성(delayed release), 긴장성(tense) 등이다. 바탕 자질은 유성성(voiced), 기식성(aspirated), 치찰성(strident) 등이다. SPE의 주요 부류자질, 방법 자질, 위치 자질 등에 의하여 자음을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차원	근거	특징
a	체계적, 음소적	목록화된 기저 표시	탄설음화, 성문음화, 이중모음, 연구개음, 비음 등이 없음
b	어휘적, 음운적	어휘 규칙에 의하여 (a)로부터 도출됨	이중모음, 연구개음, 어휘적 음운현상 등이 있음
c	체계적, 음성적	통사적 결합과 후어휘 규칙으로 (b)에 의하여 도출됨	성문음화, 기식음화, 탄설음화 등 음성적 현상이 도출됨
d	물리적, 음향적	음성적 실현과 비언어 요인으로 (c)에 의하여 도출됨	분절음이 불분명하고 무강세 모음이 선택적으로 탈락됨

<표 1> 발음 표시 차원

자음																										
변별자질		p	b	t	d	k	g	ʃ	ʒ	f	v	θ	ð	s	z	ʃ	ʒ	h	m	n	ŋ	l	r	w	y	
자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명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절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속성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상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치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성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 변별 자질에 의한 자음 분류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	후두음
정지음	ㅍ, ㅂ, ㅃ,	ㅌ, ㄷ, ㄸ, ㄹ(/r/)	ㅋ, ㆁ, ㆏	
비 음	ㅁ	ㄴ	ㅇ	
마찰음		ㅅ, ㅆ, ㅈ, ㅊ		ㅎ
측 음		ㄹ(/l/)		

〈표 3〉 한국어의 자음

한국어의 분절음 중 자음은 〈표 3〉과 같이 조음 방법에 따라, 구강음 /ㅂ, ㄷ, ㅈ, ㄹ¹⁾, ㆁ/, 측음 /ㄹ²⁾/, 비음 /ㄴ, ㅁ, ㅇ/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더하여 내는 소리, 즉 거센 날숨소리 /ㅍ, ㅌ, ㅊ, ㅋ/와 된소리 /ㅃ, ㄸ, ㅆ, ㅈ, ㅊ, ㆏/ 등으로 나누어진다.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ㅂ, ㅍ, ㅃ, ㅁ/, 치경음 /ㄷ, ㅌ, ㄸ, ㅅ, ㅆ, ㄹ, ㄴ/, 경구개음 /ㅈ, ㅊ, ㅊ/, 연구개음 /ㆁ, ㆏, ㆏, ㅇ/ 그리고 성문음 /ㅎ/로 구별된다(황희영, 1990: 183-86).

한국어와 영어의 분절음은 유사한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ㆁ, ㆏, ㆏/은 각각의 음소로의 역할을 하여 의미

차이를 가지지만, 영어에서는 분절음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음으로서 존재하지만 음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김, 킴, 킴/이 각각의 다른 의미로 존재하지만, /cake, skate, kick/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cake'에서 첫 번째 /ㆁ/는 파열이 일어나고, 'skate'에서 알 수 있듯이 /s/ 뒤에서 발음되는 /k/는 한국어의 /㆏/와 유사하게 소리가 난다.

2. 영어의 음운 현상

어휘음운론적 음운현상은 후어휘음운현상과는 달리 어휘 안에서만 일어나는 분절음의 변화, 탈락, 삽입 등을 말한다. 영어의 어휘음운현상으로는 강제규칙과 연계되는, 외율성(Extrametricity)규칙, 모음이완규칙(Vowel Laxing), 리듬규칙(Rhythm Rule), 모음변화(Vowel Shift), 유성음화와 무성음화(Devoicing), 비음동

1) /ㄹ: r/ 소리는 중국어나 인구어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고는 낱말 첫소리로 쓰이지 않는다. 서북방언에서는 중국음의 영향으로 쓰이고 있다.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쓰이거나 합성어에서 첫 번 낱말의 끝소리로 쓰인다('술 + 가락' > '술가락').

2) 한국어의 /ㄹ : l/은 음절 끝소리로서 존재한다.

화(Nasal Assimilation), 구개음화(Palatalization), 마찰음화(Spirantization), 탈락(Deletion), 삽입(Insertion) 등이 있다.

1) 비음동화

비음동화는 비음으로 인하여 모음이나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하는 비음화(Nasalization)와는 다르다. /n/이 뒤에 오는 자음들의 조음점(α ant, β cor)에 따라 [n, m, ŋ]으로 실현된다.

- (1) a. content, send, instead, month
- b. inplant, inbred, confine
- c. ink, congress, conquest

2) 구개음화

자음은 고위성의 모음이나 자음 또는 전이음 뒤에서는 구개음화되는 경향이 있다. 영어의 /s, z, t, d/ 등은 고위성인 [+high]가 뒤에 오는 경우에는 [ʃ], [ʒ], [tʃ], [dʒ] 등으로 구개음화 한다.

- (2) a. access - accession, express - expression
- b. please - pleasure, case - casual
- c. act - action, act - actually
- d. allude - allusion, decide - decision

3) 치찰음화

구개음화에 속하는 음운현상으로 /t, k,..../ 등이 뒤에 오는 고위성 모음에 의하여 [s]로 변화하여 치찰성을 띠는 소리의 변화이다.

- (3) a. fluent → fluency
- b. accurate → accuracy
- c. Gothic → Gothicism
- d. music → musician

4) 모음 약화

기능어가 강을 부여받지 않는 경우에는 강형으로 발음되지 않고 약형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 (4) a. will [wəl], would [wəd, əd]
- b. and [ənd, ən, ŋ]
- c. of [əv]

5) 연구개음화

측음 /l/은 어말이나 CC#에서 자음 앞에서는 연구개음화 된다. 즉 모음성을 띠게 된다. (5a, b)와 같이 어두 또는 모음과 모음 사이의 /l/은 밝은-l로 실현이 되고, (5b, c, d)와 같이 어말 또는 CC#에서 자음 앞의 /l/은 연구개음화되어 어두운-l로 실현된다. (5e)는 /l/이 어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두운-l로 실현이 된다. (5f)에서 /l/이 어말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l로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뒷 단어가 모음 때문에 밝은-l로 실현된다.

- (5) a. light : [lajt]
- b. illegal : [ɪlɪgəʔ]
- c. fill : [fɪʔ]
- d. milk : [mɪʔk]
- e. whole neighborhood : [howʔ neɪ...]
- f. will improve : [wɪʔ ɪmprəv] → [wɪləmprəv]
 또는 [wɪlɪmprəv]

6) 비음화와 비음동화

모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모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6a)는 음운단어 층위에서의 비음화이고, (6b)는 음운구 층위에서의 비음화이다. 그리고 (6c, d)는 억양구 층위에서의 비음화이고 (6e)는 발화 층위에서의 비음화이다.

- (6) a. can't]W, tent]W
- b. The Shah]C never thought so before.

- c. I neither saw]_P nor heard him.
- d. Food which is raw]_P [needs careful preparation.
- e. They will elect you,_I no doubt.

비음동화는 /n/이 뒤에 오는 자음들의 조음점(α ant, β cor)에 따라 [n, m, ŋ]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비음동화는 어휘음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과 같이 후어휘음운에서도 일어난다. (7a)는 접어군 층위에서의 비음동화이고 (7b)는 음운구 층위에서의 비음동화이다.

- (7) a. in convenience[*iŋ kən...*], in class[*iŋ kən...*], in Britain[*iŋ br...*]
- b. eleven people[*ilɛvən pipɫ*] /*ilɛbəm pipɫ*], Supreme Court[*...iŋ k...*]

7) 탄설음화

탄설음화는 /t, d/가 강을 받고 있는 모음과 약을 받고 있는 모음 사이에서 [r]로 발음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북미 영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미 영어에서 탄설음화는 운율 층위의 어느 한 층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층위를 구별하지 않고 탄설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주어지면 탄설음화가 일어난다. (8a, b, c)는 음운단어 층위에서의 탄설음화이고, (8d)는 접어군 층위에서의 탄설음화이다. (8e, f, g)는 음운구 층위에서의 탄설음화이다. (8h)는 억양구 층위에서의 탄설음화이고, (8i, j)는 발화 층위에서의 탄설음화이다.

- (8) a. water]_w → wa[r]er
- b. rider]_w → ri[r]er
- c. whitish]_w → whi[r]ish
- d. should ask]_c → shoul[r] ask
- e. the white]_c owl]_{cP} → the whi[r] owl
- f. invite]_c Olivia]_{cP} → invi[r] Olivia

- g. [A very dangerous wild]_P [cat escaped]_P [from the zoo.]_P → ...ca[r] escaped...
- h. [My brother bought]_P [a parrot]_P [last week.]_P → ...bough[r]...
- i. Although that was not the first camel he rode]_I, [it was most certainly the last one.]_I → ro[r] it...
- j. Have a seat.]_u [I'll be right back.]_u → ...sea[r] I'll...

8) 치경 구개음화

음절 안에서 t와 r이 같이 있을 때, t를 r의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발음한다. 이 때, t는 비기식음 [c] 또는 기식음 [c^h]으로 발음된다. 그렇지만 치경구개음화는 (9a-c)와 같이 음절 내에서만 일어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는 치경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9) a. treat : [treat]_σ → [c^h]reat
- b. street : [street]_σ → s[c]reet
- c. retrieve : [re]_σ [trievel]_σ → re[c^h]rieve
- cf. eight rat : * ei[c^h]æt
- night rate : [night]_σ [rate]_σ → *nigh[c]rate
- rat race : [rat]_σ [race]_σ → *ra[c]race

3. 한국어의 음운현상

1) 초분절음

한국어 표준말(중부 방언)에서의 소리의 길이가 음절 단위에서 작용하여 말뭉치 식별의 구실을 한다(황희영, 1990).

- (10) a. 감 : [ka:m] (材料, 柿) cf. [kam] (去, 甘)
- b. 말 : [ma:l] (語) cf. [mal] (馬, 斗)
- c. 발 : [pa:l] (簾) cf. [pa:l] (足)
- d. 배 : [pæ:l] (倍) cf. [pæ:l] (腹, 船, 梨)

e. 산 : [sa:n] (生) cf. [sa:n] (山, 酸)

그리고 한자로 된 우리말에서도 소리의 길이에 의하여 뜻이 달라진다.

- (11) a. 고장 : [ko:cang] (故障) cf. [ko:cang] (故郷)
- b. 대장 : [tæ:cang] (大將) cf. [tæ:cang] (台帳)
- c. 전기 : [jə:nki] (電氣) cf. [jə:nki] (前期)
- d. 화장 : [hwa:cang] (火葬) cf. [hwa:cang] (化粧)

소리의 길이 뿐만 아니라 소리의 높이도 음절 단위에서 뜻 식별의 구실을 경상 방언과 영동 방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희영, 1990).

(12)	고음	중음	저음
a. '말'	馬	斗	語
b. '배'	梨	船, 腹	倍
c. '밤'	夜	栗	
d. '손'	客	手	損, 孫

그러나 소리의 높이에 의한 뜻 식별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소리의 세기는 현대 한국말에서 음절 단위나 어절 단위 또는 구절단위에서 뜻 식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만 사용된다.

한국어에서의 억양은 문절 단위에서의 소리의 높이가 형식을 결정한다. 발화의 끝이 고른가 고르지 않은가에 따라서 화법적 기능이 결정되고, 끝마디가 오름새냐 내림새냐에 따라 형식이 결정된다.

- (13) a. “책을 읽어” -----→
- b. “책을 읽어” -----↘
- c. “책을 읽어” -----↗

(13a, b, c)는 같은 형태의 발화이지만, (13a)는 말끝 높이가 고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연결형이

고, (13b)는 말끝 높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설명형이거나 명령형이 된다. (13c)는 말끝 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형이 된다. 그러나 (13c)의 경우에 ‘누가’, ‘언제’, ‘어디서’ 따위의 의문사가 올 경우에, 의문사의 첫 음절에 힘을 주게 되면 말끝의 높이가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묻는 말에서처럼 말끝 높이가 올라가게 된다.

2) 음운현상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14a, b, c)와 같이 탈락, (14d, e, f)와 같이 첨가, (14g, h)와 같이 모듬, (14i, j)와 같은 나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4) a. ‘육월’ → [유월], ‘불삽’ → [부삽]
- b. ‘크어’ → [커]
- c. ‘소의고기’ → [쇠고기]
- d. ‘비물’ → [빗물] → [빔물]
- e. ‘손짓’ → [손짚]
- f. ‘푸르어’ → [푸르러]
- g. ‘이 아이’ → [애]
- h. ‘저 아이’ → [재]
- i. ‘풀에’ → [푸레]
- j. ‘읽어’ → [일거]

그리고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는 영어의 음운 현상과 마찬가지로 구개음화(15a, b, c), 비음동화(15d, e, f), 유성음화(15g, h), 경음화(15i, j), 측음화(15k, l) 그리고 격음화(15m, n)등이 있다(황희영, 1990 ; 김무림, 1992). 그러나 한국인의 영어발화에서는 측음화³⁾를 잘 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측음화는 비음 /n/이 측음의 전후에서 측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인데, 공명도에 있어서 비음보다 측음이 크기 때문에 비음이 측음에 동화되는 것이다.

- a. only /óunli/ *[óulli]
- b. Henry /hénri/ *[hélli]
- c. thinly /éinli/ *[éilli]

- (15) a. '같이' → [가치]
- b. '굳이' → [구지]
- c. '쇠붙이' → [쇠붙이]
- d. '국명' → [궁명]
- e. '먹는다' → [멍는다]
- f. '걷는' → [긴는]
- g. '농구' [noŋ ku] → [noŋgu]
- h. '나도' [na to] → [nado]
- i. '발길' → [발깁]
- j. '발등' → [발똥]
- k. '논란' → [놀란]
- l. '논리' → [놀리]
- m. '좁히다' → [조피다]
- n. '달히다' → [다치다]

III. 대조 분석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CA)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 이론적 배경을 두어 외국어 교수를 위한 두 언어의 대조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조분석 이론은 모국어의 언어체계는 제2 언어나 외국어의 언어체를 습득하는 방해와 간섭이 되므로, 두 언어를 과학적,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대조표를 만들어 습득이 어려운 구조를 예언할 수 있으므로 목표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대조분석은 두 언어와 문화의 내용상 차이를 분석하여 학습보다는 교수에 더 관심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조분석의 심리학적 기초는 먼저의 학습이 다음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데 있으며, 이 영향을 전이라고(transfer)라 하고 전이를 Ellis(198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hypothesis that the learning of task A will affect the subsequent learning of task B.

여기에서 'task A'는 모국어를 'task B'는 외국어를 의미한다.

Lado(1957)도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말할 때 모국어의 언어형태와 의미나 문화적 속성의 일부가 전이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he individuals tend to transfer the forms and meanings and the distribution of forms and meanings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culture to the foreign language and culture.

이러한 전이가 긍정적 전이(postive transfer)인 경우 목표어를 배우는데 촉진제가 되고,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는 목표어의 습득에 간섭이 된다.

또한 대조분석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두 언어를 비교, 대조하는데 이러한 두 언어의 비교 연구는 William Jones(1786)로부터 시작된 역사언어학에 유래되며 1920년대 Prague학파가 그 전통을 받아 대조분석 이론까지 발전시켰다. James(1980)는 대조분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ontrastivists see it as their goal to explain certain aspects of L2 learning. Their means are descriptive accounts of the learner's L2 and L2 to be learnt, and techniques for the comparison of these descriptions.

언어의 성분구조를 대조분석하기 위하여 언어의 최소단위로 음운, 문법, 어휘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나투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범주로서 단위(unit), 구조(structure), 등급(class), 체계(system)로 분류하여 모형을 만든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두 언어를 비교 대조하는 모형에 의해 오류나 난이도를 예언한다. 난이도란 목표어의 언어구조나 요소가 영어학습자의 모국어와 유사하면 배우기가 용이하고, 차이가 있으면 배우기가 어렵다고 Weinreich(195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 e. the more numerous the mutually exclusive forms and patterns in each, the greater is the learning problem and the potential area of interference.

Prator(1967)는 난이도의 등급을 여섯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두 언어간에 차이가 없는 언어항목은 긍정적 전이를 하므로 배우기가 가장 쉽고, 모국어의 두가지 언어항목을 목표어의 한가지 항목으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으로 어려우며, 모국어에는 있으나 목표어에 없을 때 과소구별하게 되는 항목이 보다 배우기 어려우며, 모국어에 있으나 목표어를 배울 때 새로운 형태나 분포로 재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모국어와 유사점이 없는 항목을 배우는 데는 과다한 차등이 생기므로 더 어려우며, 모국어의 한 언어항목이 목표어에서 두 가지 또는 드 이상의 항목으로 분리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ㄹ’을 영어로 /r/과 /l/ 두가지로 새로이 구분해야 할 경우가 가장 배우기 어렵다고 한다.

대조분석은 외국어 학습상 문제가 되는 항목을 기술하고, 교수하기 쉽도록 대조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오류를 예견하고 난이도의 등급을 나눈다. 그러나 대조분석의 그 다음 목표는 Fries(1946)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외국어 교수를 위한 교재의 개발이다.

The more effective materials (for teaching an L2) are those that are based upon a scientific description of the language to be learned, carefully compared with a parallel of the native language of the learner.

그러나 실제로 대조분석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법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재 또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어 사용과 연관된 문화적 차이, 담화와 논제 등의 구성에 관한 대조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비록 Lado(1957)의 주장처럼 전이가 긍정적 전이 (positive transfer)인 경우 목표어를 배우는데 촉진제가 되고,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는 목표어의 습득에 간섭이 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오는 긍정적 전이든 부정적 전이든 간에 학습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면 가르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모국어에 기인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학습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난이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모국어의 예를 통하여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모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제2 언어 또는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ㄱ, ㅋ, ㆁ/은 각각의 음소로의 역할을 하여 의미 차이를 가지지만, 영어에서는 분절음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음으로서 존재하지만 음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국어에서는 /김, 킴, 낄/이 각각의 다른 의미로 존재하지만, /cake, skate, kick/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cake’에서 첫 번째 /k/는 파열이 일어나고, ‘skate’에서 알 수 있듯이 /s/ 뒤에서 발음되는 /k/는 한국어의 /ㄱ/와 유사하게 소리가 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학습자는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국어 전이 현상에서 오는 학습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 교수자의 능력, 즉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냐는 교수 효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영어환경
/ㄱ/	kick[k ^h i:k ^ˀ]	/k/ → {k ^h }/ ___V
/ㅋ/	cake[k ^h eik ^ˀ]	/k/ → {k ^ˀ }/ V___
/ㄱ/	skate[skeit]	/k/ → {k}/ V___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와 영어 분절음의 대조분석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학습자가 한국어를 목표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조분석의 차원에서 보면 교사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능한 한국어교사의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첫째, 이중언어 능력이 있는 한국어 교사의 양성
- 둘째,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 교사의 양성

참고문헌

김기섭(1993) 「영어운율론」, 서울 : 한신문화사.
 김무림(1992) 「국어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황희영(1990) 「국어음운론 개설」, 서울 : 한국문화사.
 Chaistain, R. (1971). *The Development of Modern Language Skills: The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Center for Curriculum Deveopment.
 Chomsky, H.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Ellias, R.(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ries, C. C.(1946).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MI.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James, C.(1980). *Contrasitive Analysis*. London: Longman.

Jensen, J.(1993) *English Pho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Jones, W.(1786).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s*. London: Allen & Unwin.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Weinreich, U. (1953). *Language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Moulton.

Abstract

Phonemes Analysis · Based on Contrastive Analysis for Natural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Lim, Un

(Professor,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In our multicultural society, the importance of Korean educ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 interests of foreigners has increased because of the expansion of Korean cultures including K-pop, K-food, K-movie and K-drama. So they want to learn Korean Language. For the natural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we need to survey the transfer of mother tongue in learning target language. Therefore for natural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teachers of Korean need to use bilingual. If Korean teachers have bilingual ability, they can know the easiness and hardness in learning target language and they can guide learners and give some tips for their natural Korean pronunciation learning.

KeyWords: Bi-lingual, Korean pronunciation, Contrastive analysis, Natural pronunciation

* 필자 정보

임 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분야는 영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영어듣기학습에서의 듣기전략 사용과 성별이 모의 TOEIC 듣기성적에 미치는 영향”(교원교육, 2019),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교원교육 2017), “TOEIC 듣기평가에서 성취도에 따른 듣기전략별 남녀 대학생의 사용정도의 차이에 관하여”(교원교육, 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음향분석을 통한 발음지도”(한국문화사, 2013),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도서출판 신정, 2019) 등이 있다.

*E-mail: cloud@gwnu.ac.kr

한국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 방식의 변화: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난민, 다문화자녀를 중심으로

권영은·김정은·김윤서·최예원·이소흔(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학부생)

김규찬(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 조선족(중국동포), 난민, 다문화자녀의 재현 양상과 그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재현 이론과 타자화 개념, 프레임링 및 교차성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각 이주민 집단은 한국 사회의 상황과 정책적 요구에 따라 상이하게 타자화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초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대상에서 시혜와 동화의 대상으로 변모하였으나,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혐오와 성적 대상화의 표적이 되거나 주체적 생존자로 대항하는 양가적 흐름을 보였다. 조선족은 초기의 '근면한 동포' 이미지에서 영화 등 미디어 텍스트에 의해 구축된 '범죄자' 프레임과 반증 정서가 결합하며 '위험한 타자'로 낙인찍혔다. 난민은 비가시적 존재에서 아일란 쿠르디 사건을 계기로 인도주의적 연민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안보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국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났다. 다문화자녀는 결핍과 부적응의 존재에서 글로벌 인재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나, 이는 백인 중심의 위계적 인종주의에 기반한 선별적 포섭임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은 고정관념화, 위계화, 도구화라는 공통적 기제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의 성찰적 자정 노력과 이주민 당사자의 주체적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제언한다.

주제어: 이주민, 미디어 재현,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난민, 다문화자녀

I. 서론

2024년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 규모는 26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 대비 4.5%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OECD가 규정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외국인 비율 5% 이상)의 문턱에 다다른 수치로, 한국 사회가 이미 '실질적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민이 공식적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흘렀다. 이러한 '양적 팽창'과 함께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 또한 복잡다단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이주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여전히 대다수의 선주민(내국인)에게 미디어는 이주민을 만나는 사실상의 유일한 '창(window)'이자 간접 접촉의 통로이다. 미디어가 이주민을 어떻게 재현(representation)하는지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성하고, 나아가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의 방향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주민의 양적 팽창과 정책적 수용이 30여 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면, 과연 이들을 재현하는 미디어의 방식과 그에 따른 인식의 질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라는 단일한 범주는 이질적인 배경과 체류 자격, 그리고 한국 사회와 맺는 관계가 상이한 다양한 집단들의 특수성을 가릴 위험이 있다. 미디어 역시 이들을 단일한 방식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을 재현하는 방식과 조선족(중국동포)을 재현하는 방식, 그리고 난민을 재현하는 방식은 현저하게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을 네 가지 유형, 즉 결혼이주여성, 조선족(중국동포), 난민, 다문화자녀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이 재현되는 방식의 특수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이주민이라는 포괄적 범주가 각 집단이 처한 상이한 사회적 맥락과 미디어가 이들을 재현하는 이질적인 방

식을 은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재현 방식의 변천 과정을 추적한다. 옴니버스식 구성을 통해 각 집단의 재현 서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한국 미디어가 이주민을 재현하는 보편적 기제와 그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미디어는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난민, 다문화자녀를 각각 어떻게 재현하며, 이러한 재현 방식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각 이주민 집단별로 미디어가 주로 사용하는 재현 프레임과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셋째, 이주민 집단 간 재현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예컨대 젠더, 인종, 출신 국가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는가? 넷째, 이러한 재현 방식의 변화를 추동한 사회·문화적 맥락(예컨대 정책 변화, 주요 사회 이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2024년)까지의 주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대상 미디어는 지상파(KBS,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의 주요 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해당 시기 주요 상업 영화 및 문학작품을 포괄한다. 더불어 YouTube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각 챗터(집단)별로 해당 집단이 미디어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점을 고려하여 분석 기간과 주요 텍스트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과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병행한다.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프레임(피해자 프레임, 위협 프레임, 동화 프레임, 이국취향(exotic) 프레임 등)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s)을 범주화한다. 비판적 담화 분석을 통해서는 텍스트에 사용된 특정 어휘, 서사 구조, 그리고 시각적 재현이 어떻게 이주민을 '타자'로 구성하고 기존의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본 연구는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재현(representation) 이론과 타자화(othering) 개념을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으로 삼는다. 홀에 따르면 미디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사하는(reflection) 거울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현실을 '의미화'하고 '구성'(construction)하는 적극적인 실천이다(Hall, 1997). 이 과정에서 주류 집단(선주민)은 '타자'로서의 이주민을 재현하며, 이들을 동질적이고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배 담론을 강화한다.

이러한 재현의 구체적 기제로서 미디어 프레임링(framing) 이론(Entman, 1993)과 고정관념화(stereotyping) 이론(Mastro, 2009; Williams and Spencer-Rodgers, 2010)을 원용한다. 프레임링은 미디어가 특정 사안의 일부 속성을 선택, 부각, 연결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특정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 인과 해석(causal interpret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해결책(treatment recommendation)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정관념화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일반화하는 인지적 과정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반복될 경우 특정 집단(예를 들어 '위험한 조선족', '순종적인 동남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정당화한다.

나아가 거브너(Gerbner)의 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은 장기간 미디어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재현하는 세계상(특히 TV 속 상징적 현실)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미디어의 반복적인 이주민 재현이 한국 사회의 '상징적 현실'을 구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제1장(결혼이주여성) 분석에서는 킴벌리 크렌쇼(K. Crenshaw)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을 적용한다. 이는 이주민 재현이 '이주민'이라는 단일한 축이 아니라, 젠더(여성), 인종(주로 비백인), 계급(주로 저소득), 출신 국가(선진국 vs. 개발도상국) 등 여러 억압의 축이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구성됨을 분석하

는 데 유용하다(강원준, 2021). 예컨대, 미디어가 '백인 영어강사'를 재현하는 방식과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젠더와 인종, 계급이 교차하며 현저하게 달라진다.

한국의 이주민 미디어 재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한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재현에 집중되어, 이들이 '동정의 대상', '시혜적 다문화의 아이콘', 혹은 '가족 내 타자'로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오창우·이현주, 2011; 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강원준, 2021). 또한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선족(중국동포)이 '범죄자' 프레임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카니베코바 아이잔 외, 2020; 류찬열, 2018)이나, 특정 사건(예: 제주 예멘 난민 사태)을 계기로 난민이 '위협' 프레임으로 재현되는 양상(주재원·임이삭, 2022; 백일순·구기연, 2021; 박상희, 2019; 이경민, 2019)을 분석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다문화 자녀의 경우, '결핍의 대상'에서 '글로벌 인재'로 이동하는 이중적 시선(권윤주, 2018; Mastro et al., 2008)과 소설의 영화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사 변형(정혜경, 2021)을 분석하거나, 난민 아동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김현옥·김경호, 2023)가 진행되었다. 문학 영역에서도 초기 냉전기 영화의 난민 재현(박현선, 2016)이나 '월남 패망' 서사의 전유(조서연, 2020), 난민을 '추상적 존재'에서 '개별적 서사를 지닌 주체'로 형상화하는 변화(최남건, 2015; 강진구, 2023)나, 국내외 아동청소년문학의 재현 방식 차이(김경민, 2023)와 탈북 난민의 문제를 다룬 연구(양종근, 2021)도 등장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각 집단에 대한 재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 이주민 집단 간의 재현 방식의 차이, 혹은 시대적 변천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잇되, 네 집단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특

수성과 더불어 한국 미디어가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기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I. 이주민 집단별 재현 방식과 변화

1. 결혼이주여성의 재현: '동정의 대상화'에서 변하지 않는 '동화주의적, 성·인종차별적 대상화'

1)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와 '가난한 아내'의 등장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당시 '외국인 신부')은 미디어에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이 시기 재현의 핵심은 '가난한 국가 출신의 순종적인 아내'라는 이미지였다. 이들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호명되었다.

강원준(2021)은 영화 <완득이>(2011) 속 필리핀 이주여성 재현을 통제적 이미지(controlling images)와 '교차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완득이>의 어머니는 2000년대 초반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가난한 아내, 가사노동 수행자, 그리고 가족 완성을 위한 도구라는 통제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화된다(강원준, 2021: 47-52). 이 시기 시사교양 프로그램 역시 이들의 '가난'을 부각하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경제적 상승의 기회로 묘사하고, 시혜적 시선을 견지했다.

또한 <미녀들의 수다>(2006-2010)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의 미모나 몸매를 부각하며 '성상품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국 미녀'와 같이 출신국을 부각하여 대상화하고, 연애 상대로서의 환상을 부추겼다. 이는 주로 서구권/백인 여성에게 집중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여성은 '순종적 아내'로, 서구권 이주여성은 '매력적인 연애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인종적·젠더적 위계를 구축했다.

2)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다문화 사회의 시혜

적 대상과 '동화'의 압력

이주민이 증가하며 '다문화 사회'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자, 미디어는 결혼이주여성을 당시 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동화'의 대상과 시혜적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러브 인 아시아>(2005-2015)는 국제결혼 가정을 조명하기 시작하며,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주변 이웃의 인터뷰를 통해 성실함, 귀여움 등의 표현을 강조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주로 다루었다. 일부 영상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집안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이주여성과의 경제·문화적 격차를 드러내며 시혜적 대상으로서 다루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의 기대에 맞춘 '가족과 사회에 동화되고 헌신하는 바람직한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이 아내의 집안을 돕는 바람직한 국제결혼'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다문화 고부열전>(2013-2021)은 '고부갈등'이라는 프레임에 집중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주여성은 '며느리'로서의 역할(가사, 돌봄,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문제시되거나, 서툰 한국어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고부갈등이라는 보편적 소재를 다루면서도, 갈등의 원인을 이주여성의 '미숙함'이나 '문화적 차이'로 돌리고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강화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집안에서의 갈등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집을 나가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르렀을 때도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다뤄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부족과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구조적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한 면도 있다.

이 시기 재현의 핵심적 코드는 '동화주의'이다. 이연옥·박병현·장덕현(2012)의 신문 사설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언론은 결혼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자 도구로 인식했으며,

이들의 권익보다는 한국 사회의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또한 이들을 한국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순응하고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온정을 받는 수동적 존재이자, 한국 문화와 가치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대상이었다.

3) 2010년대 후반 ~ 현재: 유튜브와 '혐오', '성·인종차별'의 대상화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다변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재현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특히 '국제결혼' 관련 콘텐츠에서 혐오와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국제결혼, 러시아 국제결혼 등 국적별로 이주여성을 구분하고, '예쁜 신부', '순종적인 처' 등 외모를 강조하거나 성적대상화하는 썸네일과 제목이 만연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국제결혼을 '구매' 행위처럼 묘사하고, 이주여성을 한국 남편에게 반한 수동적 존재로 그리며 환상을 자극했다. 특히 러시아 등 CIS 국가 여성은 '백인 미녀'로, 동남아시아 여성은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도구화하며 인종차별적 위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아가 이주여성과의 성매매, 사기결혼 등을 연관 짓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규제 없이 확산되며 이주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성·인종차별적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발간된 2022 미디어 속 성·인종차별 모니터링 보고서(김도희 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재편집되어 유튜브에 게시되면서 자극적이거나 차별적인 메시지를 담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2021)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예고에서부터 '국제 아내들의 솔직발칙 K-라이프', '미녀들 선을 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주여성들을 한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자극적인 편집으로 국제결혼 부부 사이 스킨십에 대해 강조하거나, 시집살이 등

고부관계의 갈등을 부각하는 등 되풀이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대한외국인>(2018-2022)에서도 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을 한국어 수준별로 구분하며, 이주 여성에 '컬러 렌즈 낀 한국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인종차별적, 동화주의적 태도를 여전히 드러냈다.

4) 대안적 흐름: '주체'로서의 목소리와 관심

이러한 주류 미디어의 타자화에 맞서, 이주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대안적 흐름도 존재한다. 이주여성 인권 단체나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2022),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2018)와 같은 출판물은 이들이 겪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이중고를 폭로하고, '피해자'나 '머느리'가 아닌 '생존자'이자 '노동자', '활동가'로서의 주체적 서사를 구축하려 시도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동료 이주민들과 연대하여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존재로 스스로를 재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적' 미디어 실천은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에 비해 조회수나 관심도가 낮아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이주민·이주여성을 접할 때 혐오와 선동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주여성의 주체적 재현 활동에 관심 가진다면, 편견을 벗어나 성·인종차별에 대해 깊이 인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조선족(중국동포)의 재현: '근면한 노동자'와 '위험한 타자' 사이의 낙인

1) 1990년대 ~ 2000년대 초반: '코리아안 드림'과 '불법체류자'의 이중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코리아안 드림'을 안고 많은 조선족(중국동포)이 한국으로 이주했다. 초기 미디어 재현은 '동포'라는 민족적 유대감과 '근면한 노동자'라는 경제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주로 건

설 현장, 식당 등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주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빚을 지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미디어의 시선은 급격히 냉각되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행정 규정 위반자를 넘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범법자’라는 부정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신정아·한희정, 2016). 이 시기 뉴스 보도는 이들이 연루된 사건·사고를 부각하기 시작했으며, ‘동포’라는 인식은 악화되고 ‘타자’로서의 경계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범죄자 프레임’의 확립

2010년대는 한국 미디어, 특히 영화에서 ‘조선족=범죄자’ 프레임이 확립되고 고착된 시기이다. 2010년 영화 <황해>는 조선족을 불결하고 폭력적인 청부살인업자로 전면 배치하며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류찬열, 2018). <황해>의 성공 이후, <공모자들>(2012), <신세계>(2013) 등은 조선족을 장기밀매,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반복적으로 재현하며 ‘범죄자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흐름의 정점은 2017년 영화 <범죄도시>이다. 이 영화는 조선족 밀집 지역인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무법천지이자 경찰이 소탕해야 할 공간으로 타자화했다. 류찬열(2018)은 <청년경찰>과 <범죄도시>가 조선족에 대한 ‘편견의 완성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편견이라기보다는 영화적 장치’라는 감독의 해명은 영화적 장치라기보다는 편견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극 중 조선족 조폭은 공공연히 ‘조선족’이라는 키워드로 지칭되며, 이들을 소탕하는 한국인 형사의 영웅적 활약과 대비된다. 이러한 ‘영웅 대 악인’의 구도는 조선족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 카니베코바 아이잔 외(2020)의 인터뷰 연구에 따르면, 실제 관람객들은 이 영화들을 본 후 조선족에 대해 ‘범법자’, ‘무서운 사람’ 등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영화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카니베코바 아이잔 외, 2020).

3) 2010년대 중반 ~ 현재: ‘낙인’의 지속과 ‘반중 정서’와의 결합

영화에서 확립된 ‘범죄자 프레임’은 다른 미디어 장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KBS <개그콘서트>의 ‘황해’(2013-2014) 코너는 영화 <황해>를 패러디하며 ‘보이스피싱’을 조선족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유희화했다. 조선족은 어눌한 연변 사투리를 구사하며 우스꽝스럽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된다. 심지어 대한민국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소재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국가 기관마저 이러한 고정관념화에 동조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대 들어 <황해> 2025가 ‘스미싱’이라는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부활한 것은 이러한 낙인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눌한 발음과 우스꽝스러운 묘사는 여전하며, 관객의 웃음소리는 이러한 유희화된 혐오가 한국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2010년대 후반부터 격화된 ‘반중 정서’는 조선족(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사드(THAAD) 배치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중국에 대한 혐오가 증가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 한국, 미국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사드 배치 후 한한령으로 이어진 갈등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혐중 감정을 확산시켰다. 또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동양인, 특히 중국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조선족(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로 투영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이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 내 반중 정서는 온라인 미

디어와 커뮤니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가해자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특정하며, 조선족을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혐오를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혐오를 양산하는 섯폼 콘텐츠의 댓글을 보면 ‘짱깨’, ‘빨갱이’와 같은 비하적 표현이 사용되며, 중국동포를 열등하고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확산 속도가 빠른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혐오가 통제되지 않은 채 급속히 전파되고, 수용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인식하고 평가하게 된다.

중국동포인 조선족은 이러한 혐오의 대리 표적이 되었다. 2015년 EBS 다큐멘터리 <사선에서>의 「밤의 파수꾼, 기동순찰대」 편은 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건 현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해당 다큐멘터리는 2020년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재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2024년 이후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조선족’과 ‘대림동’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범죄도시 실제 배경, 조선족들의 성지,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재업로드되었으며, 2025년에는 「오늘도 칼부림이다.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의 모든 것」이라는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시 게시되었다. 이러한 제목의 변화는 범죄와 특정 집단을 연관 짓게 하고, 공영방송이 해당 영상과 주제를 게시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내 반중 정서가 공영방송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익명성을 띤 커뮤니티의 혐오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업고 혐오를 담은 영상이 재생산된다는 것은 대중이 잘못된 혐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 외국인 범죄율 통계(2020년 이후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미디어가 구축한 ‘범죄자’ 이미지는 ‘반중 정서’와 결합하여 ‘조선족=위험한 타자’라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

3. 난민의 재현: ‘비가시성’에서 ‘공포와 연민’의 극단적 재현으로

1) 2000년대 이전 ~ 2000년대: 타자화된 ‘보트 피플’과 ‘탈북민’ 중심의 제한적 재현

한국 미디어에서 ‘난민’ 이슈가 본격화된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늦다. 백일순, 구기연(2021)의 신문 기사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난민 이슈는 ‘베트남’에서 유입된 ‘보트 피플(Boat People)’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임시 체류자’로 인식되었기에(노영순, 2013) 부정적 여론은 미약했다. 하지만 이 재현 또한 ‘월남 패망’이라는 반공 이데올로기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서연(2020)의 분석에 따르면, <가위 바위 보>(1976)나 <웨딩드레스>(1990) 같은 영화들은 베트남 난민(주로 여성과 아동)을 ‘나라 잃은 사람들’로 타자화하여 공포와 연민의 대상으로 재현했다. 이 과정에서 난민 구제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 한국의 파병 책임을 은폐하고, 난민을 구제하는 ‘온정적인 한국인’의 자아상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월남 패망’을 활용했다(조서연, 2020).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난민 의제는 탈북민 이슈와 연관되어 다루어졌다(백일순, 구기연, 2021). 하지만 탈북민은 국제법적 차원으로 이해되는 난민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었기에, 미디어 재현 역시 ‘난민’보다는 ‘동포’ 혹은 국가 간 외교 문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박현선(2016)은 <오발탄>(1961), <혈맥>(1963) 등 전후 월남인(북한 난민)을 다룬 초기 영화들이 냉전 체제하에서 이들이 진정한 국민으로 전환 가능한지에 따라 거처가 결정되었음을 지적한다. 이후 <해무>(2014) 등에서는 난민의 존재론이 ‘죽음정치(necropolitics)’와 연결된다고 분석했다(박현선, 2016). 문학 작품에서도 강영숙의 『리나』가 탈북 난민 ‘리나’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인신매매를 겪는 ‘하위 주체(subaltern)’로 전락하는 과정을 통해 비극적 모빌리티(이주)를 드러내는(양종근, 2021) 등 탈북 난민의 서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 난민은 탈북민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가시적’ 존재였으며,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 존재로 형상화되는 데 그쳤다(최남건, 2015; 강진구, 2023).

2) 2010년대 초반 (2015년): 아일란 쿠르디와 인도주의적 ‘연민’의 부상

2010년대 중반, 난민 재현의 극적인 전환점이 발생한다.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다. 2014년까지 연간 400~500건에 불과했던 한국의 난민 관련 기사 수는 2015년 2,833건으로 폭증했다(이경민, 2019). 김현옥과 김경호(2023) 역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언론의 난민 아동 보도가 해외 구호 대상에서 국내 공동거주의 문제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파악한다.

이는 ‘피해자 식별 효과(identified victim effect)’로 설명된다(Heizler and Israeli, 2021; 김현옥, 김경호, 2023). 난민 현황을 데이터나 통계로 접할 때와 달리, ‘아일란 쿠르디’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얼굴과 비극을 통해 난민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연민과 관심이 급증했다. 이경민(2019)의 키워드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난민 관련어는 유럽, 독일, 시리아, 쿠르디 등 국제적 이슈가 중심이었다.

3) 2010년대 후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위협 프레임’의 폭등

불과 3년 뒤인 2018년 6월,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인해 한국 사회는 거대한 홍역을 치른다. 박상희(2019)는 이 현상을 코헨(Cohen)의 이론을 적용하여 ‘도덕적 공황(moral panic)’으로 분석한다. 아일란 쿠르디를 통해 형성된 ‘연민의 프레임’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기점으로 ‘위협과 공포의 프레임’으로 급격히 반전되었다. 난민 이슈가 타국의 비극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

시기 언론 키워드는 유럽 중심에서 제주도, 예멘, 법무부, 외국인청 등 국내 키워드로 급격히 이동했다(이경민, 2019).

이 시기 미디어, 특히 온라인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난민=위협 프레임’이 양산되었다. 난민 키워드는 ‘이슬람’ 혹은, ‘무슬림’과 등치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 ISIS 테러 사건 등으로 축적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결합했다(백일순, 구기연, 2021). 예멘 난민들이 20~30대 남성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들은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 ‘불법체류자’, ‘가짜 난민’으로 동일시되었다(박상희, 2019; 문미리, 2022). ‘난민 점령’, ‘난민 폭탄’ 등 침략적, 사물화하는 용어가 사용되었고(박상희, 2019),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현 방식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주재원·임이삭(2022)의 분석에 따르면, 진보 언론은 우호적 담론을, 보수 언론은 배타적 담론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포털 뉴스 댓글 분석 결과, 언론사의 정치 성향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성향과 관계없이 ‘베스트 댓글’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배타적 관점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매개된 담론이 혐오적 공론장을 재생산했음을 보여준다(주재원·임이삭, 2022). 특히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혐오를 조장하고 도덕적 공황을 심화시켰다(박상희, 2019).

4) 2020년대 (아프간 사태) ~ 현재: ‘선별적 수용’과 ‘공존’의 모색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아프간 협력자들을 ‘특별기여자’로 명명하여 수용한 사건은 난민 재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문미리(2022)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예멘 난민을 경제적 이주자, 범죄인 등 부정적 프레임으로 보도했던 보수 언론조차 2021년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는 ‘한국을 도운 조력자’, ‘사회적 약자(여성·아동)’로 재현하며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다. 난민이라는 용어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난민에 대한 사회

적 거부감을 우회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난민 수용성이 매우 '선별적'이며,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재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문미리, 2022).

한편, 2018년 사태 이후 문학계에서는 난민을 주제로 한 성찰적 작업이 등장했다. 류찬열(2020)은 하종오 시인의 시집 『제주 예멘』이 난민 문제를 '시혜의 차원'이 아닌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난민 위기가 아닌 '책임의 위기'임을 성찰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강진구(2023)와 김경민(2023)의 연구에 따르면, 『어느 날 난민』(표명희, 2018)이나 『난민 말고 친구』(최은영, 2020)와 같은 국내 아동청소년문학은 난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공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난민 개인에 주목해 개별적 존재인 난민의 박해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난민심사과정을 묘사하여 난민인정율이 약 2%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심사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난민의 문제를 다룬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양종근, 2021)나, 자발적/경제적 난민을 다룬 김윤영의 『타잔』(최남건, 2015) 등과 함께 문학적 상상력이 확장된 결과이다. 난민이 되는 과정 자체의 비극성을 증언하는 해외 번역 문학(김경민, 2023)과는 구별되는 지점으로, '난민들'이라는 추상화된 집단이 아닌 '난민 개인'의 박해 서사(강진구, 2023)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예멘 난민 사태로 한국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4. 다문화자녀의 재현: '결핍된 아동'과 '글로벌 인재'라는 이중적 시선

1) 2000년대 ~ 2010년대 초반: 결핍된 존재와 적응의 대상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의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이들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거나 결핍된 존재로 재현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 미디어는 다문화 자녀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로 지칭하며 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학교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 미디어 텍스트들은 주로 시혜적 시선이나 어두운 현실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했다. KBS 1TV 어린이날 특집 다큐멘터리 <수진이의 봄>은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농촌 초등학생 수진이의 일상을 다루며, 희망적인 내레이션과 밝은 배경 음악, 농촌의 평화로운 정경을 통해 '밝게 자라나는 다문화 자녀'라는 동화주의적 희망을 투영하였다. 반면, 경인방송의 <인사이드> 16회 '차이 혹은 다름, 우리도 한국인 이야기' 편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겪는 편견을 고발하는 데 집중했다. 느리고 무거운 음악과 어두운 배경, 텍스트와 통계 수치, 아이들의 눈물과 그림, 전문가 진단 등을 교차 편집하여 혼혈 아동이 겪는 차별의 경험과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였다.

특히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소외된 현실을 보다 날카롭게 포착하였다. 제3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이주와 아동' 세션에서 소개된 <세리와 하르>는 안산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배경으로, 베트남 어머니를 둔 혼혈 아동 '박세리'와 파키스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하르'를 통해 혼혈 아동과 이주 아동 사이에 층위화된 사회적 위계를 그려냈다. 영화는 어둡고 암울한 공간 풍경, 밤거리, 매매혼 현수막, 단속반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등을 통해 이들의 불안한 삶을 시각화했다. 같은 영화제의 <소년은 자란다> 역시 안산의 주택가를 배경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현실을 다루었다. 지하 셋방에 사는 사라 가족과 주인집 아들 병주의 관계, 혼혈이라고 놀림받는 학교생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라와 교복을 맞추는 병주의 대비, 그리고 단속과 면회 장면 등을 통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이주 아동의 결핍을 드러냈다.

또한, 아름다운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기나긴 여정>(〈나마스테 평화야 놀자〉, 〈나의 길을 보여다오〉 등 총 3편 구성)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탈북 후 한국 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다루며, 이주 아동의 범주를 확장하여 그들의 곤경을 조명하였다. 권윤주(2018)는 이러한 재현들이 다문

화 청소년을 대개 ‘비백인 혼혈’이자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묘사하며, 차별에 저항하기보다 가족 내 갈등이나 개인적 결핍을 겪는 존재로 대상화한다고 지적한다(권윤주, 2018).

2) 2010년대 후반 ~ 현재: ‘글로벌 가족’으로의 일상화와 ‘바람직한 다문화’의 위계

결혼 이주민들의 정착이 보편화되고 다문화 자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재현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붕구야 말해줘> 시즌 2를 연출한 고현미 PD는 기획 의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시청자 아동들이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즌 1에서는 주인공 나영이가 엄마의 고향인 브라질을 방문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문화 자녀를 ‘결핍’이 아닌 ‘이중 문화 역량’을 가진 주체로 재현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중적 파급력이 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재현의 편향성이 존재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서는 서구(백인) 출신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이국적 외모와 언어 능력을 앞세워 ‘글로벌 인재’이자 ‘바람직한 다문화’의 표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아동은 크게 결혼이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아동이라는 세 범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새터민 아동을 이주 아동으로 범주화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외국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에는 적극적인 반면, 이주 아동을 주체적 주인공으로 배치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미디어는 이주 아동의 일상을 입체적으로 다루기보다, 어린이날 특집이나 명절, 혹은 사건·사고 중심의 보도를 통해 기획된 특정 주제의 도구로 일회성 소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미디어의 재현 관행이 이주 아동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현실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조선족(중국동포), 난민, 다문화자녀 네 집단의 미디어 재현 방식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옴니버스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각 집단은 한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재현되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정한 변화의 궤적을 공유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재현은 ‘며느리’, ‘아내’로서의 젠더·가족 역할이 강조되며 ‘성상품화’(2000년대)되다가, 뉴미디어 시대에 ‘혐오’의 대상(2010년대 후반 이후)이 되거나 ‘주체적 생존자’(대안적 흐름)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족의 경우, ‘코리아 드림’의 이주자(1990년대)에서 영화, 개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자’ 프레임(2010년대)이 고착되었으며(류찬열, 2018; 카니베코바 아이잔 외, 2020), 이는 ‘반중 정서’와 결합하여 ‘낙인’으로 강화(2010년대 후반 이후)되었다. 난민은 ‘비가시적’ 존재(1990-2000년대)에서 ‘인도주의적 연민’의 대상(2015년)으로 부상했으나(이경민, 2019; 김현옥, 김경호, 2023), ‘제주 예멘 사태’(2018년)를 기점으로 도덕적 공황(박상희, 2019) 속 ‘안보 위협’과 인종·종교(이슬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다문화자녀는 ‘결핍과 동정’의 대상(2000년대)에서 ‘글로벌 인재’ 또는 ‘일상적 가족’의 일원(2010년대 후반 이후)으로 재현의 스펙트럼이 확장되었으나, 이는 서구·백인 중심의 ‘바람직한 다문화’를 선별적으로 재현하는 위계적 인종주의(권윤주, 2018)의 한계를 보였다.

각기 다른 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 방식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기제가 발견되었다. 첫째는 단순화와 범주화(stereotyping)이다. 미디어는 이주민 개인의 복잡한 서사와 입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이들을 특정 집단으로 묶어 단순하고 정형화된 이미지로 소비했다. 둘째는 이중적 재현과 위계(hierarchy)화이다. 각 집단은 ‘모범적 이주민’과 ‘위험한 타자’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재현되었으며, 출신 국가, 인종,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이주민’과 그렇

지 않은 이주민 사이에 명확한 위계가 설정되었다. 셋째는 도구화(instrumentalization)이다. 이주민의 재현은 한국 사회의 필요(노동력, 저출산 문제 해결)와 불안(범죄, 안보)에 따라 도구적으로 이루어졌다(이연옥 외, 2012). 이주민은 그 자체로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익에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상당 부분 무지와 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는 대중이 이주민을 만나는 사실상 유일하거나 가장 강력한 간접 접촉의 통로이자 정보의 원천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디어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 미디어가 이주민의 삶을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담아낼 때, 이는 사회적 무지를 바로잡고 편견을 해소하는 긍정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이주민을 단순히 행정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통합을 넘어, 이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실질적 통합을 이루고 상호적 소통, 교류, 수용, 타협에 기반한 사회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미디어가 흥미와 자극에 치중하여 이들을 '위험한 타자'(조선족, 난민)나 '동정의 대상'(결혼이주여성)으로 고정관념화할 때, 미디어는 사회적 무지를 되려 강화하고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주재원·임이사, 2022). 이러한 재현 방식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차별적 인식을 고착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재현 가이드라인 마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의 미디어 접근성 및 주체성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추후 과제를 남겼다. 첫째, 논문에서 이주민 네 집단의 재현 방식을 개괄적으로 탐색하였으나 뉴미디어에서 재현 방식을 충분히 다루지 못

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갈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유튜브, OTT, 소셜 미디어 등에서 이주민 재현 방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디어 내 텍스트 분석에 머물렀으나, 이러한 재현물이 실제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내면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한계로서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미디어 재현을 분석하지 못했다. 김이선 외(2019)가 지적하듯, 그간 한국의 이주여성 정책과 사회적 관심은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들이 겪는 특수한 인권과 차별의 문제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비전문 이주노동자들이 주류 미디어의 드라마나 예능에서 거의 재현되지 않는 현상, 즉 '지워진 존재'로 남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차별적 재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원준 (2021). 영화 속 이주여성을 향한 통제적 이미지와 교차성: 영화 "완득이"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8(2), 39-59.
- 강진구 (2023). 한국문학 속 난민의 재현 양상: 최인식의 「스페인 난민수용소」와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94, 171-196.
- 권윤주 (2018). 한국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 (2023). 난민을 향한 문학적 상상력: 국내·외 난민 문학 비교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23(3), 107-140.
- 김도희, 김민정, 김재서, 남지은, 루이자, 박승아, 심혜림, 오춘희, 이진수, 장한울, 최영서, 최윤민 (2022). 2022 미디어 속 성·인종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이선, 최윤정, 김수진, 오세연, 최혜연 (2019). 이주여성의 다양성과 정책 재구성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옥, 김경호 (2023). 난민아동과의 공동거주에 관한 주제변화: 타임 라인별 난민아동 언론보도에 관한 텍스트마이닝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5(2), 245-276.
- 노영순 (2013).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디아스포라연구>, 7(2), 75-108.
- 류찬열 (2018).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127-147.
- 류찬열 (2020). 하종오 시집 『제주 예멘』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37-258.
- 문미리 (2022).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 보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3(4), 5-40.
- 박상희 (2019). 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한국 사회의 도덕적 공황. <인권연구>, 2(2), 1-46.
- 박현선 (2016). '난민'과 한국영화: 냉전 한국의 생명정치와 탈-장소의 정치적 미학. <상허학보>, 48, 149-183.
- 백일순 (2022).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34(2), 151-169.
- 백일순, 구기연 (2021). 국내 신문 기사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 이슈의 변동. <대한지리학회지>, 56(2), 129-147.
- 신정아, 한희정 (2016). 미디어담론에 나타난 조선족 정체성의 변화와 의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1-74.
- 양종근 (2021). 모빌리티, 디아스포라, 난민 문학: 강영숙의 『리나』와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탐라 문화>, 68, 107-132.
- 오창우, 이현주 (2011). TV가 재현하는 다문화 현실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재귀적 해독. <언론과학연구>, 11(3), 147-180.
- 이경민 (2019). 신문기사의 난민 키워드 변화 경향 연구 -'빅카인즈' 신문기사 제목 활용-.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3, 99-114.
- 이연옥, 박병현, 장덕현 (201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국내 주요 일간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2), 33-69.
- 정해경 (2021). 청소년서사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나타나는 가족과 개인. <대중서사연구>, 27(2), 215-262.
- 조서연 (2020). '월남 패망'의 한국적 전유와 타자화된 난민의 재현: 영화 <가위 바위 보>(1976)와 <웨딩드레스>(1990)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67, 363-401.
- 주재원, 임이삭 (2022). 매개된 배타적 담론과 혐오적 공론장의 재생산: 제주 예멘 난민 관련 포털 뉴스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6(1), 97-134.
- 최남건 (2015).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난민의 재현 양상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21, 281-302.
- 카니베코바 아이잔, 선봉규, 무하마드 아이잔 (2020).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사회적 인식: 「청년경찰」과 「범죄도시」 사례. <인문사회 21>, 11(4), 365-378.
- Cohen, S. (2011).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London: Routledge.
-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J. Bryant & D. Zillman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ll, S. (Ed.).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 Heizler, O., & Israeli, E. (2021).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and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a natural experiment study.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3, 101713.
- Mastro, D. E. (2009). Racial/ethnic stereotyping and the media. In R. L. Nabi & M. B. Oliver (Eds.), *The SAGE handbook of media processes and effects* (pp. 377-391). London: Sage.
- Mastro, D. E., Behm-Morawitz, E., & Kopacz, M. A. (2008). Exposure to television portrayals of Latinos: The implications of aversive racism and social identity theor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4(1), 1-27.
- Williams, M. J., & Spencer-Rodgers, J. (2010). Culture and stereotyping processes: Integration and new direc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8), 591-604.

Abstract

Changes in Media Representation of 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Marriage Migrants, Korean–Chinese, Refugees, and Multicultural Children

Yeongeun Kwon¹, Jungeun Kim¹, Yoonseo Kim¹, Yewon Choi, Soheun Lee¹
Gyuchan Kim²

¹Undergraduate Students, Dept. of Multicultural Studie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t. of Multicultural Studie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represent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Joseonjok (ethnic Koreans from China), refugees, and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n media from the late 1990s to the present. Utilizing Hall's representation theory, the concept of othering, and framing theory, this research conducted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examine how these groups have been portrayed over time. The results indicate that marriage migrant women have transitioned from instrumental tools for reproduction to objects of assimilation, and recently to targets of hate and sexualization in new media, alongside emergent counter-narratives of subjective survival. Joseonjok have shifted from the image of hardworking compatriots to 'dangerous others' stigmatized by criminal frames in films and anti-China sentiment. Refugees evolved from invisible beings to objects of humanitarian sympathy, only to be framed as security threats following the Jeju Yemen refugee crisis, showing selective acceptance based on national interest. Multicultural children transformed from deficient maladjusted figures to icons of 'global talent', yet this representation remains limited by racial hierarchies favoring Western features. Consequently, this study argues that Korean media reproduces mechanisms of stereotyping, hierarchization, and instrumentalization, necessitating enhanced media literacy and the strengthening of migrants' media agency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prejudice.

Keywords: Migrants, Media representation, Marriage migrants, Korean Chinese, Refugees, Multicultural children

* 필자 정보

권영은, 김정은, 김윤서, 최예원, 이소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 재학중이다.

김규찬(교신저자):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사회학과에서 이민정책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 재직하며 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이민정책, 유학생정책이다. 최근 저서로는 「이민정책론」(2022, 공동체)과 논문(공저)으로 “유학생의 체류자격 전환과 지역 정착 경험 연구” (2025, 한국이민정책학보)가 있다.

*E-mail: gyuchankim@gwnu.ac.kr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제도화와 사회서비스 제공¹⁾

박수지(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의 배경을 개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EMES의 연구보고서(1997, 1998, 1999)를 중심으로 당시 제3섹터와 사회경제조직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제도화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책으로 도입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책을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유럽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을 첫째, 공급자로서 지역주민 욕구 파악 역량과 둘째, 생산자로서 지역주민과 형성한 신뢰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유럽연합, 복지국가 위기, 사회적기업 제도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 이 논문은 다음 연구보고서의 저자 집필 부분 '제3장 유럽 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및 시사점'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 및 수정한 것임: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박수지·장원봉·장은진·이정은·박경희(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서론

국내에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개념에 관한 견해는 전문가들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기업을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제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2007년 이전 존재한 협동조합과 자활공동체 등의 조직을 사회적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존재한다.

유럽국가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낯선 개념이었다. 그보다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내의 조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는 19세기 말 산업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거시적 전망이었다(엄형식, 2008). 이후 사회적경제는 거시적 전망의 의미를 거의 잃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경제활동과 조직들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대안금융, 지역화폐, 지역은행, 생태공동체, 공정무역 등이 사회적경제로 일컬어졌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상 미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엄형식(2008)은 1980년 미국의 경제학자 빌 드레이튼이 기업가로서의 열의와 열정,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갖춘 기업가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가들(social entrepreneurs)'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사회적기업 용어의 시초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방향, 즉 '실업자의 지역노동시장 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지역공동체 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비전은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진행된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제도와 유사하다. 당시 유럽의 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주목하였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계기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European

Research Network의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a 프로젝트의 불어명 약자임) 연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EMES 연구팀은 유럽연합 15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운영 현황과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 15개국이 공유하는 사회적기업의 실체와 공통 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이익으로의 기여, 2) 시민사회의 주도성, 3) 자본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 5) 제한적 이윤 배분, 6)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 및 판매, 7) 높은 자율성, 8)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9) 최소한의 유급노동. 이 기준은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조직들의 공통 운영원리를 보여준다. 드프뤼니(2001)는 이 EMES 연구를 근거로 하여 유럽 내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을 비영리부문과 협동조합의 교집합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제도화의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당시 유럽 내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법적 형태, 그리고 주요 활동 영역을 개관하고자 한다. 둘째, 당시 유럽 복지국가의 여건에 관해 알아보고 주요한 사회적기업 지원책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2000년대 초반 유럽 내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운영: EMES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1. 유럽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활동 영역

1)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법적 형태

EMES(1999)가 제시한 유럽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유형은 그 설립 주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비영리 종교단체의 사회적기업이다. 70년대 중반 청년실업이 만성화되면서 개신교 비영리 조직은 청소년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의 일자리를 유급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기개발 및 직업교육의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소규모 작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80년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1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저숙련 취약계층 노동자, 장기실업자, 장애인의 고용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소득보장프로그램과 연계된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유럽 시민세력이 지역사회의 실업, 환경, 여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기업 활동의 주요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동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정부는 시민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민간부문(개인 및 영리조직)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 특히 90년대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회적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문화, 관광, 특산물, 레저 등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다양한 설립 배경을 갖는 사회적기업은 각기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법적 형태로는, 1) 협회, 2) 회사, 3) 협동조합, 4) 재단이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으로써 민법 상의 협회(association)로 등록될 수 있다. 동일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향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사회 조직이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둘째, 회사의 형태가 있다. 전통적인 사회적기업을 다소 벗어난 형태로 상대적으로 늦게 사회적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가치지향적인 영리조직이 시장에 적응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

한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회사법의 지위를 갖는 경우 기업의 운영자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회사의 형태이면서 기존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폐쇄적인 회사 형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독일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고용을 하는 회사(gGmbH: work integration company for community interest의 독어 명 약자임)'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유한책임회사법에 의한 회사로 등록하고 있다.²⁾ 셋째, 협동조합의 형태가 있다. 이는 전형적인 유럽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그 외에 주택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도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강한 나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사회협동조합법에 의한 조직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주요 활동 영역

유럽연합 15개국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형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꼽을 수 있다. 엄형식(2008)은 유럽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을 대인서비스, 고용서비스(노동을 통한 훈련 및 재통합), 지역개발의 세 분야로 구분하고 국가별로 주력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개관하였다.

2)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전 제5장 유한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음(상법 543-613조)

〈표1〉 유럽 국가별 주요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

분야	국가	사례
대인서비스	오스트리아	아동 그룹(Children's Groups): 부모의 활발한 참여로 지원되는 보육(Childcare)서비스
	프랑스	부모가 선두에 서는 보육 조직: 일부 부모가 이끌고 관리하는 보육서비스(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 ACCEP)
	덴마크	사회적 주거(social residences): 불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존기관의 대안으로 디자인된 주거 기관. 훈련 및 케어서비스에 초점
	영국	홈 케어(Home Care) 협동조합으로서, 파트타임으로 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여성을 고용
	스웨덴	전국 레벨에서 조직된 협동조합 로컬 개발 에이전시(FKU): 그 목적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재활과 재통합
	이탈리아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보건, 훈련 또는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으로 1991년 이탈리아 국가의회에서 채택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관리
	포르투갈	장애 아동의 훈련과 재활을 위한 협동조합(1985년 전국적 연합으로 통합)
고용서비스	벨기에	벨기에 남부의 OJT기업과 노동통합기업 및 북부의 통합기업과 사회적 워크숍.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하는 노동통합기업은 시장지향성이 높고 장기 고용에 초점
	이탈리아	B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노동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1991년 법적 프레임워크)
	독일	시장 지향적 사회적기업으로 임시 공적 지원을 받으며, 목표는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촉진, 장기실업자의 사회적 및 직업적 통합. 기존 민간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시작 단계에서)에서 일자리를 창출
	룩셈부르크	환경, 농업, 건설, 쓰레기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및 경제적 활동을 통해 구성원에게 통합을 제공하는 협회(그리고 때로는 노동조합).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스페인	장애인 또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개인을 위한 노동통합기업. 장기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타깃 그룹을 기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과도적 일자리(transitional employmen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지역개발	핀란드	지역별 노동협동조합이 9개의 협동조합 개발 에이전시(Cooperative Development Agencies)로 조직되어, 로컬과 지역 레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의 용역을 다른 기업으로 하청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 협동조합과 상이
	네덜란드	"지역 관리 기업(neighbourhood management enterprises)": 근접 서비스(proximity service)를 개발하는 독립기업으로서,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 인프라와 개인 주택을 유지관리 개선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 일자리를 제공
	그리스	농장 관광 협동조합(farm tourism cooperative): 관광 가능성이 있는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세운 협동조합으로서, 숙박, 케이터링, 작은 공예품 서비스를 제공
	아일랜드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로컬 공동체 개발 기업으로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노동 통합(work integration), 신용조합(credit union), 근접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2. 2000년대 이전 유럽 사회적기업의 운영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다음의 〈표2〉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유럽국가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별 규모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 영역 중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에서 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와 교육부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살펴보면 스웨

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의 비중이 15% 미만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대륙 국가의 비중이 20%~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주로 공공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반면 유럽 대륙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시민사회부문, 제3섹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2〉 유럽의 시민사회(civil society) 활동 영역 (1995-2000) (단위: %, 천명)

	문화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환경	지역 개발	권익 옹호	재단	국제	전문	n.e.c.	전체 (천명)
벨기에	11.1	30.5	23.9	22.9	0.5	8.3	0.5	0.3	0.4	1.5	0.0	456.9
체코	35.8	10.6	11.9	13.1	6.1	6.7	3.5	2.2	1.4	8.6	0.0	115.1
핀란드	32.6	12.4	13.1	15.5	0.7	1.6	16.8	0.2	0.4	6.2	0.4	137.6
프랑스	30.0	14.6	9.2	27.4	5.0	4.7	1.9	0.6	2.4	4.3	0.0	1,981.5
독일	19.7	7.6	21.8	27.2	2.8	4.4	3.3	1.0	1.6	4.2	6.4	2,148.9
헝가리	36.8	8.9	4.7	15.1	2.2	11.3	2.3	3.7	1.0	14.0	0.0	54.8
아일랜드	10.5	43.0	23.3	13.0	0.9	5.7	0.5	0.7	0.47	1.7	0.3	150.3
이탈리아	23.9	14.8	18.0	26.1	1.2	3.6	3.0	0.8	0.6	6.7	1.2	950.1
네덜란드	17.2	23.1	29.5	20.3	2.0	1.7	2.9	0.2	1.2	1.8	0.0	1,051.8
노르웨이	41.2	11.2	6.0	14.0	0.6	4.3	6.3	0.2	2.9	13.1	0.3	163.0
폴란드	32.7	22.2	6.7	19.5	1.7	1.0	1.0	0.4	1.0	10.8	3.0	154.6
루마니아	28.6	15.1	8.5	32.2	2.2	2.4	3.8	1.0	4.0	2.4	0.0	83.9
슬로바키아	37.0	20.4	1.9	10.1	9.0	1.1	3.8	5.6	0.9	9.1	1.1	23.0
스페인	15.2	20.6	10.5	30.8	3.0	9.2	5.9	0.1	2.6	1.8	0.2	728.8
스웨덴	45.5	6.8	0.9	10.5	2.1	4.4	10.2	0.2	2.3	15.4	1.7	342.9
영국	27.5	25.4	8.0	16.0	2.4	12.5	1.8	1.3	2.4	1.5	1.2	2,536.0

주: 조사대상인 36개 국가 중 유럽 17개국의 자료를 제시함(자료가 없는 오스트리아는 표에서 제외함).

자료: Lester 외(2004)

2) 사회적기업의 인력과 자금조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 시장, 시민사회 각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다음의 〈표3〉은 유럽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비

영리부문의 인력 현황을 피고용인의 수와 자원봉사자 수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부문의 조직들이 동원하는 자원봉사 인력, 즉 시민사회의 무보수인력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자원이다. 서유럽 국가, 즉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

〈표3〉 유럽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피고용인과 자원봉사자 수 (단위: %)

	피고용인	자원봉사자	전체
오스트리아	3.84	1.07	4.92
벨기에	8.62	2.32	10.93
체코	1.32	0.72	2.04
핀란드	2.42	2.77	5.25
프랑스	3.70	3.75	7.55
독일	3.54	2.33	5.89
헝가리	0.94	0.21	1.15
아일랜드	8.28	2.15	10.42
이탈리아	2.26	1.49	3.76
네덜란드	9.21	5.07	14.40
노르웨이	2.69	4.35	7.20
폴란드	0.64	0.17	0.80
루마니아	0.35	0.44	0.79
슬로바키아	0.57	0.24	0.82
스페인	2.82	1.48	4.31
스웨덴	1.74	5.11	7.10
영국	4.84	3.63	8.54

주: 조사대상인 36개 국가 중 유럽 17개국의 자료로서, 1995-2000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Lester 외(2004)

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에 경제활동인구의 7%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약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³⁾

다음의 <표4>는 유럽 시민사회조직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64.3%), 오스트리아 (50.4%), 네덜란드(59.0%) 등 보수주의 국가에서 정부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III. 유럽국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1.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

1) 고실업률과 실업의 장기화

1980년대 유럽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의 실업 기간이 또한 장기화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에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1979년 20%에서 1980년대 말

<표 4> 유럽국가 시민사회(civil society) 부문의 자금조달 (1995-2000) (단위: %, 백만달러)

	정부	기부	이용료	US달러	정부	기부	이용료	US달러
	물적 지원만 고려할 경우				인적, 물적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오스트리아	50.4	6.1	43.5	6,262	41.3	23.1	35.6	7,643
벨기에	76.8	4.7	18.6	25,576	65.9	18.1	16.0	29,773
체코	39.4	14.0	46.6	860	32.1	30.0	37.9	1,056
핀란드	36.2	5.9	57.9	6,064	25.2	34.6	40.3	8,722
프랑스	57.8	7.5	34.6	57,304	33.4	46.6	20.0	99,234
독일	64.3	3.4	32.3	94,454	42.5	36.2	21.3	142,887
헝가리	27.1	18.4	54.6	1,433	26.2	21.1	52.7	1,483
아일랜드	77.2	7.0	15.8	5,017	67.6	18.6	13.8	5,732
이탈리아	36.6	2.8	60.6	39,356	30.2	19.7	50.1	47,647
네덜란드	59.0	2.4	38.6	60,399	46.1	23.9	30.1	77,391
노르웨이	35.0	6.9	58.1	5,640	20.0	46.9	33.1	9,895
폴란드	24.1	15.5	60.4	2,620	22.8	20.1	57.1	2,771
루마니아	45.0	26.5	28.5	130	20.5	66.5	13.0	285
슬로바키아	21.9	23.3	54.9	295	21.3	25.1	53.1	302
스페인	32.1	18.8	49.0	25,778	25.2	36.3	38.5	32,833
스웨덴	28.7	9.1	62.3	10,599	14.6	53.7	31.7	20,805
영국	46.7	8.8	44.6	78,220	36.4	28.8	34.8	100,196

주: 조사대상인 36개 국가 중 유럽 17개국의 자료를 제시
 자료: Lester 외(2004)

3) 자원봉사 인력의 가치를 존스 홉킨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제시함 (1995-2000, 백만달러)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1,380.4	4,197.7	196.4	2,657.5	41,929.6	48,433.0	49.7	715.6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8,290.7	16,991.6	4,255.8	150.8	155.0	7,055.1	10,206.1	21,976.2

〈표 5〉 유럽 복지국가의 장기실업자 비중 (단위: %, 전체 실업자 대비)

	1979		1989		1999		2006	
	A	B	A	B	A	B	A	B
프랑스	55.1	30.3	63.7	43.9	55.6	40.4	62.6	44.0
독일 ²⁾	39.9	19.9	66.7	49.0	67.2	51.7	73.1	57.2
스웨덴	19.6	6.8	18.4	6.5	45.2	30.1	27.8	14.2
영국	39.7	24.5	57.2	40.8	45.4	29.6	40.9	22.1
미국	8.8	4.2	9.9	5.7	12.3	6.8	17.6	10.0

주: 1) A는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비중, B는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
 2) 1979년과 1989년은 서독지역만, 1999년과 2006년은 동독지역 포함
 자료: Susie Park(2008)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영국에서도 70년대 말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25%이었던 것이 90년대 말 40%까지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도 70년대 말 30%이었던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90년대 말 40%까지 증가하였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어서 90년대 말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30%까지 증가하였다.

유럽국가 내 장기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시도하게 된다. 초창기에는 장기실업자 스스로의 실업 극복 의지를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의 액수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며, 이후에는 획일적이었던 정부의 실업자 대상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 복지국가에서 현금지원과 관련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분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유럽 복지국가는 특히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개별화한 대인서비스 즉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조직, 비영리조직의 장기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의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사업과 연계하여 확충하였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조직, 비영리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또한 복지국가의 직업훈련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는 80, 90년대 유럽 내 사회경제조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복지혼합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1980년대 유럽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장기화한 고실업과 고령화, 그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 부족은 유럽 사회에 위기의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복지국가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서 유럽 내 시민사회조직과 비영리부문의 인적, 물적 자원, 네트워크가 주목되었다. 즉 유럽국가에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사회경제조직의 발달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발전한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그렇다.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특성을 살려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특히 장기실업자를 고용하여 일-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의 두 영역 즉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과 유사하다.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복지국가 사업과 비교하여 표준화가 힘들고 개인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강점이 있다. 일자리 제공의 경우도

〈표 6〉 사회서비스 제공과 국가재정지원 정도에 따른 사회적기업 모델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주도적(60%이상)	부분적(60%이하)
제3섹터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중	주도적 (50%이상)	보조적 모델 (subsidiarity model) 예) 독일	제3섹터 지배적 모델 (third-sector dominant model) 예) 이탈리아, 영국(보육)
	보완적 (50%이하)	정부주도적 모델 (state dominant model) 예) 노르웨이	시장주도적 모델 (market dominant model) 예) 영국(주거보호) 미국(주거보호)

자료: Ascoli & Ranci(2002)

단순한 고용을 넘어 일자리 적응, 일자리 배치, 훈련 등의 일련의 과정을 개인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고용에 관한 대인서비스 즉 고용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공의 행정가, 기업의 전문가보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조직이나 시민조직의 서비스를 신뢰하는 유럽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선호되어 확대될 수 있었다. 유럽 복지국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동원할 수 있었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공공(중앙/지방정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scoli와 Ranci(2002)는 유럽의 제3섹터, 시민사회, 비영리부문의 조직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역할하는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정부 재정 지원 정도와 사회서비스 공급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유형화하였다. 첫째, 노르웨이의 사회적기업 제도를 정부주도적 모델로 보았다. 이 경우 정부가 여전히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있고 사회적기업은 재원을 지원받아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대리한다. 둘째, 독일의 사회적기업 제도를 보조적 모델로 보았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제공의 책임을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셋째,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제도를 제3섹터 지배적 모델로 보았다.

다. 사회적기업 등이 속한 제3섹터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넷째, 영국을 시장주도적 모델로 보았다. 영리조직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많다 보니,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 의존도도 높지 않다.

2. 유럽국가의 사회적기업 육성책

사회적기업은 시장과 제3섹터 비영리부문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시장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와 차별화되는 아이템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의 요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유럽의 복지국가는 1990년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노동부와 ‘함께 일하는 재단’은 2008년 유럽 31개국의 명시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3섹터의 시민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7〉은 유럽 31개국의 핵심적인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개관하고 있다.

〈표7〉 유럽 국가별 핵심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국가	지원방안
오스트리아	보호작업장(법령), 사회적경영 석사과정(사업지원), 비영리단체 세금우대(법령)
벨기에	자문비용(재정지원), 사업보조금(재정지원), 창업센터(사업지원), 사회적경제 를 위한 플랜더스 참여기금(재정지원)
불가리아	지역사회기금 및 사회적기업 프로그램(기타), 장애인 통합고용법에 의한 지원(재정지원) 신규고용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기타)
키프로스	취학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재정지원), 취학 연령 아동센터(재정지원), 특 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재정지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재정지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기타)
체코	비영리조직의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재정지원)
덴마크	자원봉사 단체와 협회간의 파트너십(협력강화), 자발적 사회복지사업을 위 한 보조금(재정지원)
에스토니아	기업가 정신개발(협력강화), 지자체의 개발 허용(협력강화)
핀란드	사회적기업법(법령),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사업지원), 노동정치 사업지원(재 정지원)
프랑스	취약계층 ‘고용계약’에 대한 지원(재정지원), 취약계층의 ‘미래를 위한 계 약’에 대한 지원(재정지원), 노동시장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협력강화), 공 공조달법(법령)
독일	사회적기업과 이웃 경제를 위한 베를린 개발청(사업지원), 공리성에 대한 면세 혜택(법령), 사회적경영 석사과정(사업지원)
그리스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네트워크(EQUAL), 프로그램 ‘비정부적 시 각’(EQUAL), Soc-Eco(EQUAL), 사회적 근린 동맹(사회적 경제 학교)(EQUAL)
헝가리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법(법령), 민간 고용 워크숍(협력강화), 경제적 회사에 관한 법(법령)
아이슬란드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 자립기관에 관한 법(법령)
아일랜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재정지원), 지역사회 고용개발 프로그램(재정지원)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재정지원), 사회적기업 규정(법령)
라트비아	부동산 세금 경감(법령), 비정부기구의 결과 중심적이고 투명한 발전(사업 지원)
리히텐슈타인	사회적기업의 재산, 소득,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법령)
리투아니아	사회적기업의 설립(EQUAL), 사회적 고용기업 개발(사업지원)
룩셈부르크	National Service of Social Action(사업지원)
몰타	소득세법(법령), VAT법(법령)
노르웨이	면세(법령), 개인맞춤형 평생직장 제공회사 전국연맹(협력강화)
폴란드	사회적 협동조합법(법령),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지원 프로그램(기타)
포르투갈	공조협약(재정지원), 사회적 홍보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전국 네트워크(재 정지원), 사회적 고용시장 프로그램(기타)
루마니아	사회적개발기금(재정지원), 보호기구(사업지원), 사회적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법적지위를 갖는 루마니아 협회와 재단에 지급하는 보조금(재정 지원)
슬로바키아	소득세 양도(재정지원),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기관을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구로 전환(법령), 장애인 고용에 대한 후원(재정지원)
슬로베니아	장애인 급여에 대한 보조금(재정지원), 장애인 고용기업의 지급 급여에 대 한 면세(법령)
스페인	사회적 행동을 위한 비정부 단체 위원회(협력강화), 마드리의 대시민 오리엔테이션 서비스(사업지원), 웹사이트 (www.solucionesong.org)(사업지원)
스웨덴	Samhall(장애인 고용 공기업)의 독점 금지(법령), 임금보조금(재정지원)
네덜란드	Taste the meeting(카페이름)(EQUAL), 사회적기업가정신 석사과정(사 업지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회사(EQUAL)
터키	터키 민법-재단 법규(법령), 협회법 No.5253(법령)
영국	사회적기업청(기타), 공동체이익회사(법령), 개발 트러스트 협회(협력강화), 사회적기업 파트너십(EQUAL)

자료: 조영복 외(2010), 노동부(2008)

위의 <표7>에 제시된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은 아래의 5가지 범주로 개괄될 수 있다.

첫째, 법령(21개 조치): 명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을 갖는 경우이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기업에 특수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조세 감면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둘째, 재정지원(26개 조치):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원방안이다. EU 초기회원국 15개 국가에서 가장 주요한 사회적기업 지원이다.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을 대변하는 연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형태 혹은 사회적기업 피고용자의 인건비를 일정한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일 수 있다.

셋째, 사업지원(13개 조치): 정부의 사업지원 혹은 경영지원은 재정지원에 비해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사회적기업이 정부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이미 유럽 내 시민사회에서 가치지향적 경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조직에 공공이 의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부문의 사업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 노동능력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부의 사업지원 방안도 늘어나고 있었다.

넷째, 협력증진 방안(8개 조치): 공공부문은 시민사회 주도로 발달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공공부문으로 영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 증진 방안이 시도되었다.

다섯째, EQUAL사업에 의한 지원(8개 조치): EQUAL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용가능성 향상,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고양,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적응력 향상,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현, 이민자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5개 목표를 지원한다.

여섯째, 위의 지원책 이외 기타 지원조치로, 영국의 '사회적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 불가리아의 '지역기금 및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루마니아의 '사회

개발기금' 등이 있다.

IV. 결론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 풀뿌리조직이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 조직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실천 조직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음의 강점을 갖는다. 첫째,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공급자(provider)로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발생한 비인간성 등의 문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자발적으로 조직화한 대안 경제조직이어서 개인의 욕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90년대 유럽 지역사회의 실업자 증가, 특히 증가하는 장기실업자의 고통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사회조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간부문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정부 재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또한 유럽사회기금을 동원하여 유럽 시민사회의 활성화(activation policy)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질 높은 서비스의 생산자(producer)로서 가능성을 갖는다. 시민의 참여(민주적 의사결정)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은 대인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기본이 되는 생산자와 이용자의 신뢰를 형성하기 유리하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도 용이하다. 지역사회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은

외부기관의 품질인증, 전문가 평가보다 기관 내 조직과 서비스 이용자의 평가, 그리고 그 가족에 의한 관리, 감독을 선호한다.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관리의 시작일 수 있다. 즉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지역사회 신뢰는 시장, 공공이 추구하기 어려운 효율성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urope”, 『Dilemmas of the Welfare Mix: The New Structure of Welfare in an Era of Privatization』. Kluwer Academy/Plenum Publishers, 25-45.
 Susie, P. (2008). 『Anforderungen und Wirklichkeit der "qualifizierenden Beschaeftigung" im Spannungsfeld der Arbeitslosen-und Sozialhilfepolitik』. Stuttgart. Ibidem-Verlag.

참고문헌

강혜규·박수지·장원봉·장은진·이정은·박경희(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지역 실태조사』. 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연구원.

조영복·곽선화·류정란(2010). 『유럽 사회적기업 부문: 정책과 사례』. 사회적기업연구원.

Ascoli, U. & Costanzo, R. (2002). 『The Context of New Social Policies in Europe, Dilemmas of the Welfare Mix: The New Structure of Welfare in an Era of Privatization』. Kluwer Academy/Plenum Publishers.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Borzaga &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1-28.

Defourny, J. & Nyssens, M.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and Civil Society』. London: Routledge.

EMES Network. (1997, 1998, 1999).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A New Answer to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Semestrial Progress Reports to the European Commission.

Lester, M. & Salamon, S. & Wojciech, S. & Associates (2004).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Volume 2.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Ranci, C. (2002). "The Mixed Economy of Social Care in

Abstract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an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Susie Park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in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early 2000s. Focusing on the research reports of the European Union (EU) EMES (1997, 1998, 1999), we examin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third sector and socio-economic organizations at the time, and derived the backgroun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early 2000s. We also looked at the crisis in European welfare states that began in the late 1990s an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s introduced as a response. In conclusion, the potential of European social enterprises as social service providers was presented as, first, their ability to underst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s suppliers, and second, the trust they build with local residents as producers.

keywords: social enterprise, european union (EU), crisis of European welfare states,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service provider

* 필자 정보

박수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 Justus-Liebig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사회정책학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정책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서비스 정책, 장애인복지, 사회적기업 등이다.

*E-mail: susiepark@gwnu.ac.kr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욱, 서슬희, 조아현, 이남경, 박수빈, 유송이(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장수정(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연구목적: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에서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간호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학습 몰입, 진로 적응 및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W시 소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5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12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75 ± 0.58 점, 전공만족도는 4.00 ± 0.70 점,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3.70 ± 0.57 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r=.63, p<.001$) 및 간호전문직 정체성($r=.6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도 간호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r=.57, p<.001$)를 나타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보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53.7%였다. 결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실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간호대학생,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간호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단계로, 학생들이 간호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경험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임상 현장에 적용해보며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22~24학점, 즉 대략 1,000시간 내외의 임상실습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임상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송지호, 김미원, 2013).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 역량과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단순한 학습의 경험을 넘어 전공에 대한 흥미와 몰입,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미라, 김미자, 2018).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는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며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박형숙 등, 2018)에 따르면,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재 속한 학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로 정의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졸업 후 진로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형숙 등, 2018). 즉,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몰입도와 지속 의향이 증가하고,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직무 적응이 용이해진다. 실제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경숙, 2024)에서, 전공만족도가 학업 지속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간호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nursing identity)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전문직업적 역할을 인식·확립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 전문직에 대한 수용과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Wu et al., 2024). 간호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학습 행위가 적극적이고, 졸업 후에도 간호직에 잔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u et al., 2024). 반대로, 간호전문직 정체성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탈 의도가 높은데(Wu et al., 2024), 이는 결과적으로 신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졸업 후 간호사 유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심리·동기적 요인이다.

선행연구들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 간의 연관성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해 왔다.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 예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에도 정적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Kim 등(2024)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직 정체성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Kim et al., 2024). 한편, 임경민과 조은주(2016)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이미라, 김미자, 2018)에서 변수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해당 연구(이미라, 김미자, 2018)에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이 향상되었고, 실습내용, 실습환경 등 세부요인이 간호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에도 정적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이렇듯,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 전문성 유지 등 실무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차원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임상 현장에서의 만족 및 전공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교육의 질 향상과 간호전문직 성장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W시 소재 소속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첫째, 2025년 1학기 기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둘째, 3학년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며, 셋째, 만 18세 이상인 학생이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2025년 1학기 기준 휴학한 자이다. 휴학생의 경우, 현재 학업 및 실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연구 참여에 있어 일관된 경험을 반영하기 어려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 산출에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8개, 양측 검정,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 크기 0.15, 검정력 80%를 적용한 결과, 최소 121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적용한 결과, 총 145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수는 총 121명이었고, 누락된 응답이 없어 모두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임상실습 만족도 31문항, 전공만족도 12문항, 간호전문직 정체성 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학년, 만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실습 기간(주 수), 실습 기관 수, 누적 성적 관련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결자와 강현숙(1984)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와 이성은(2001)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이순희 등(2004)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였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혜숙(1999)이 우리의 문화에 맞게 수정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도 도구 중 추출한 것에서 김명희와 주동범(2024)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요인부하량이 적은 6문항을 제거한 12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일반 만족 5문항과 전공에 대한 인식 만족 7문항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4) 간호전문직 정체성 척도

간호전문직 정체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윤은자 등(2005)의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의 29문항에서 김명희(2008)이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18문항으로 추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5년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해당 간호학과와 social networking service(카카오톡)에 모집공고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에게 Google Survey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설문지를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와 함께 제공하였다. 온라인 설문 첫 화면에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절차와 내용, 이익과 보상, 위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자료의 보관, 중도 철회 또는 중단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게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함’ 항목에 체크한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제공을 위해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연락처는 사례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자료수집 후, 3,000원 상당의 핸드크림을 보상으로 제공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컴퓨터의 완전 삭제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했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 3)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 24세 이하' 71명(74.4%), '만 25~29세' 26명(21.5%), '만 30세 이상' 5명(4.1%)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77명(63.3%), 남성 44명(36.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 83명(68.6%), 3학년 38명(31.4%)이었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54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28명(23.1%), '가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18명(14.9%),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15명(12.4%), '부모님(가족)의 권유 때문에' 6명(5.0%)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실습 기간은 '17주 이상' 48명(39.7%), '9~16주' 38명(31.4%), '8주 이하' 35명(28.9%) 순이었다. 경험한 실습 기관 수는 '4곳 이상' 71명(58.7%), '3곳 이하' 50명(41.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3.5~4.5' 86명(71.1%), '2.5~3.4' 35명(28.9%) 순이었다(표 1).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수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75±0.58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

내용으로는 '학습 진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이 4.19±0.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제 병동 업무 위주의 실습' 4.14±0.75점, '긴장된 분위기' 4.03±0.85점, '교과목별 실습 적합' 4.02±0.79점, '적당한 집담회 시간' 4.01±0.86점 순이었으며, '과제의 양'이 3.23±1.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4.00±0.70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 중, '부모님이 멋있게 생각함'이 4.36±0.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교과목'이 3.68±1.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정체성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70±0.57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 중 '간호사의 노력으로 전문지식을 획득함'이 4.31±0.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가 3.17±1.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F=3.00, p=.003$)와 간호전문직 정체성($F=2.67,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남학생(3.95 ± 0.56 점)이 여학생(3.63 ± 0.56 점)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또한, 성적이 '3.5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임상실습만족도를 보였다($F=-2.18, p=.031$).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선택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71, p<.001$). 간호전문직 정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차이 ($N=121$)

변수	범주(n)	M±SD, t/F(p)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	
학년	3학년(38)	3.81±0.58	0.85	4.09±0.64	0.96	4.09±0.64	2.51
	4학년(83)	3.72±0.58	(.397)	3.96±0.72	(.339)	3.96±0.72	(.007)
성별	남(44)	3.95±0.56	3.00	4.09±0.75	1.04	3.88±0.60	2.67
	여(77)	3.63±0.56	(.003)	3.95±0.67	(.301)	3.60±0.53	(.009)
전공 선택 이유	취업(54)	3.65±0.60		3.75±0.99		3.58±0.59	
	적성(28)	3.96±0.59		4.41±0.47		3.80±0.55	
	가족(6)	3.50±0.47	1.86	3.90±0.35	5.71	3.62±0.53	1.32
	안정(15)	3.68±0.31	(.123)	3.89±0.74	(<.001)	3.82±0.47	(.268)
	가치(18)	3.84±0.65		4.24±0.61		3.84±0.61	
학업성적	<3.5(35)	3.57±0.48	-2.18	4.00±0.644.00	-0.48	3.60±0.60	-1.20
	3.5≥(86)	3.82±0.61	(.031)	4.00±0.72	(.962)	3.74±0.56	(.231)

체성에서는 성별($t=2.67,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3.88 ± 0.60 점)이 여학생(3.60 ± 0.53)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 정체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51, p=.007$), 3학년(3.89 ± 0.53 점)이 4학년(3.61 ± 0.57 점)보다 간호전문직 정체성 수준이 더 높았다(표 1).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상관관계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r=.63, p<.001$), 간호전문직 정체성($r=.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 정체성($r=.5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적인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정체성으로 나타났다(표 2).

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위계에서는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즉, 성별과 학년을, 2단계 위계에서는 간호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85(1.8 < d < 2.2)$ 로 산출되어,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VIF지수는 $1.00 \sim 1.11$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1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성별($p=.004$)과 학년($p=.006$)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설명력은 11.5%

<표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상관관계 ($N=121$)

변수	Pearson 상관(변수 간 상관관계)			유의확률 (p)
	임상실습만족도 점수	전공만족도 점수	간호전문직 정체성 점수	
임상실습만족도 점수	1	.632**	.687**	<.001
전공만족도 점수	.632**	1	.569**	<.001
간호전문직 정체성 점수	.687**	.569**	1	<.001

** $p<.001$

<표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N=121$)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4.693	0.26		18.12	<.001	1.632	0.35		4.63	<.001
성별	-0.30	0.10	-0.25	-2.79	.004	-0.11	0.08	-0.09	-1.41	.161
학년	-0.30	0.11	-0.24	72.79	.006	-0.21	0.08	-0.17	-2.70	.008
임상실습만족도						0.50	0.08	0.51	5.99	<.001
전공만족도						0.19	0.07	0.23	2.75	.007
$R^2_{adj}(\Delta R^2_{adj})$.115					.537(.422)				
$F(p)$	7.643(<.001)					33.671(<.001)				

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포함된 2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53.7%로, 42.2%p ($F=33.67$,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상실습만족도($\beta=0.52$, $p<.001$)가 전공만족도($\beta=0.23$, $p=.007$)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상실습만족도 점수와 전공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위계 모형에서 통제변수인 성별과 학년의 설명력은 11.5% 수준으로 제한적이었으나, 2단계 위계 모형에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52.1%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전공 관련 경험과 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도 향상되며, 특히,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임상실습내용과 실습환경 등, 임상실습의 세부 요인들이 간호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선행 연구(이미라, 김미자, 2018)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정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임상실습 경험의 질 향상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임상실습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본 선행 연구(이현정, 2016)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

생(3.95 ± 0.56 점)이 여학생(3.63 ± 0.56 점)보다 더 높은 임상실습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전문직 정체성에서도 남학생(3.88 ± 0.60 점)이 여학생(3.60 ± 0.53)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3학년(3.89 ± 0.53 점)이 4학년(3.61 ± 0.57 점)보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개념인 전문직관을 확인한 선행 연구(양영주, 박선아, 2020)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 수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임경민과 조은주(2016)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3학년이 4학년보다 전문직 자아정체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일치하는 근거나 설명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단면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각 학교의 실습기관의 환경, 실습기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전국 간호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 미쳤을 영향과 설문지 해석의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임상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보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전공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수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환경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실습 중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간호대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학습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개입이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역량 중심의 간호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실습 기회를 넘어 멘토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체계적인 임상실습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 측면에서는 지역과 대학을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 Kim, B., Park, J., Ko, S. W., Kim, N. Y., Park, J., & Seo, G. (202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a descriptive stud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30(4), 321-330.
- Wu, X., Lu, Y., Zeng, Y., Han, H., Sun, X., Zhang, J., Wei, N., & Ye, Z. (2024). "Personality portrait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BMC Nursing*, 23(1), 420.
- 김명희(2008).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 김명희, 주동범(202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38집: 29-49.
- 박형숙, 윤정미, 이선녀, 이숙련, 이미순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 43집: 35-45.
- 송지호, 김미원 (2013). "간호학 임상실습교육 실태 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19집: 251-264.
- 양영주, 박선아(2020). "간호대학생의 간호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충청, 강원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제 42집: 903-930.
-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 35집, 1091-1100.
- 이미라, 김미자(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 19집: 197-208.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제 10집: 219-231.
- 이성은(2001).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모색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7집: 333-348.
- 이현정(2016).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융합적인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 7집: 75-83.
- 임경민, 조은주(20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 17집: 556-566.
- 임경숙(2024). "신입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 9집: 169-174.
- 조결자, 강현숙(1984).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 14집: 63-74.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DongUk Kim¹, Solhee Seo¹, AHyeon Cho¹, 1, NamKyeong Lee¹, Soo Bin Park¹,
Song Yi Yoo¹, Soo Jung Chang²

¹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Clinical practice is a key component of nursing education that links theory and practice and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engagement, career adaptation, and job reten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included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ged 18 years or older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from a nursing college in W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via an online survey conducted from May 10 to May 19, 202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Data from 121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mean scores (out of 5) were 3.75 ± 0.58 fo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4.00 ± 0.70 for major satisfaction, and 3.70 ± 0.57 for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r=.63$, $p<.001$) and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r=.69$, $p<.001$). Major satisfaction wa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r=.57$, $p<.001$).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0.52$, $p<.001$) showed a stronger effect on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than major satisfaction ($\beta=0.23$, $p=.007$), with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53.7%. **Conclusions:** Improving th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and enhancing major satisfaction are essential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nursing identity

* 필자 정보

김동욱, 서솔희, 조아현, 이남경, 박수빈, 유송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장수정(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분야는 성인(노인)간호학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만성질환자(치매, 당뇨) 간호, 노인요양시설 실무, 생애말기 환자 간호, 질적 연구방법론, 측정도구 개발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Nursing staff'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n long-term care facilities: a qualitative study" (BMC Nursing, 2025), "End-of-life care preparedness and educational needs among nursing staff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 cross-sectional study" (BMC Nursing, 2025) 등이 있다.

*E-mail: sjchang@gwnu.ac.kr

자존감과 학업성취에 있어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가윤, 김상연(국립강릉원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학년)

허만섭(국립강릉원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존감, 교우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특히 교우관계가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동국대학교 재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매개효과 분석, K-평균 군집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결과:**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r = .720$)를 보였으며, 교우관계 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존감이 교우관계 만족도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군집분석에서는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의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내적 특성인 자존감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적 맥락의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존감,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만족도, 매개효과

I. 서론

대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원만한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높고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 의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존감,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사이에 실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인 교우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존감의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중학생 이후로 제2의 중2병이라고 불리는 이십춘기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와 자기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때이므로 이 세 요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대학 생활을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탐구에 적용하는 중요한 개념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학업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높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든다(양지영·김선형, 2024). 교우관계 만족도는 또래 친구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학업이나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연주·최승원, 2021).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학습을 달성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주로 성적, 과제수행 능력, 학업 참여도 등으로 평가되며,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이승진·김경근, 2015). 이 탐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직전 학기 평균 학점 즉, 성적으로 학업성취도를 정의했다. 본 탐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자존감과 교우관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종속변수로 다룬다.

II. 문헌 검토

일부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존감은 대학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학업 및 대인 관계 적응에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김영희·고태순, 2019).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탐구에서도 자존감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학업 및 대인 관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 결정성, 대인 관계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 관계 능력이 대학 생활 적응과정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 적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전미경·오재우, 2019). 다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은 학업 지속 의향 및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정은선·하정희, 2017). 특히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고, 이는 결국 학업성취도 혹은 학업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또래 및 대인 관계의 질이 대학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본 탐구에서 교우관계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

대학 신입생에게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김명아·김지영·김은정(2014)의 연구에서 대학 신입생의 자존감과 셀프리더십은 대인 관계 능력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관계 능력이 더 높았다. 두 변인은 대인 관계 능력의 약 36%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박슬기(2018)의 연구는 자존감을 단일 차원이 아닌 '유능감'과 '가치감'이라는 2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수행과 적응을 보인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자존감을 구성하는 하부 요인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능감에 근거한 자존감은 성공·실패와 같은 성취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유능감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성취 상황에서 더 큰 노력을 보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자존감, 교우관계, 학업과 관련한 문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연구 문제 (Research Questions)를 도출하였다.

RQ1: 대학생의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는 서로 연관되는가?

RQ2: 대학생의 자존감은 교우관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가?

RQ3: 대학생은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의해 분류되는가?

2. 대상

연구 대상은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2025년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글폼 설문 링크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동국대학교의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렸다. 이 세 학교 재학생 13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8명(51.5%), 여성이 64명(48.5%)이었다.

3. 분석 유목 및 방법

자존감을 묻는 5개 문항은 5점 선형배율(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됐다. 질문내용은 '나는 친구들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가진 장점들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이었다. 질문 문항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존감 척도를 반영했다. 교우관계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은 또래와의 애착 정도와 의사소통, 신뢰 차원을 측정하는 암스덴과 그린버그(Armsden & Greenberg, 1987)의 문헌을 적용해 5점 선형배율로 구성했다. 질문은 '나는 친구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이었다. 학업성취도는 단일 객관식 문항으로 '귀하의 직전 학기 평점은 4.5 점 만점 기준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였다. 응답 선택지는 1.50 이하, 1.51~2.50, 2.51~3.50, 3.51~4.00, 4.01~4.50으로 5개였다. 직전 학기 평점을 구간별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학습자의 실제 성취 수준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기법이다(Cassady, 2001).

RQs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SPSS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존감(5문항)과 교우관계 만족도(3문항)는 각각 Cronbach's α 가 .81과 .90이었으며 문항 평균값(평균 합성점수)으로 산출하여 연속 변수에 준해 처리했다. 학업성취도는 서열형 변수로, 분석에서는 1~5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RQ1의 분석에는 피어선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활용하였다. RQ2의 경우,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RQ3의 분석을 위해선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RQ1의 결과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응답자의 평균 자존감은 3.70 (이하 5점 척도), 평균 교우관계 만족도는 3.62, 평균 학업성취도는 2.85이었다. RQ1과 관련해,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의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교우관계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는 .175 ~ .720을 나타냈다(표 1).

〈표 1〉 대학생의 자존감, 교우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

r	자존감	교우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
자존감	1		
교우관계 만족도	.720**	1	
학업성취도	.175*	.273**	1

** = $p < .01$, * = $p < .05$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r = 0.720$, $p < 0.01$)는 교우관계 만족도와 자존감 간에 나타났다. 두 변수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상관계수($r = 0.273$, $p < 0.01$)는 학업성취도와 교우관계 만족도 간에, 세 번째로 높은 상관계수는($r = 0.175$, $p < 0.05$)는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간에 나타났다. 이들 쌍은 약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이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내면의 높은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RQ2의 결과

‘자존감은 교우관계 만족도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RQ2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Baron & Kenny 방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Durbin-Watson), 다중공선성(VIF, 공차), 영향치(Cook의 거리)를 함께 진단했다.

1단계(독립변수 → 매개 변수): 자존감은 매개 변수인 교우관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720$, $p < .001$). 베타 값의 크기로 볼 때 자존감은 교우관계 만족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Adj. R^2)은 51.4%였다(표 2).

2단계(독립변수 → 종속변수): 매개 변수를 투입하기 전,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75$, $p = .045$).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3단계(독립변수, 매개 변수 → 종속변수):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교우관계 만

〈표 2〉 대학생의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의 교우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Adj. R^2	F
1	교우관계	자존감	.733	.062	.720	11.82	< .001**	.514	139.60**
2	학업성취	자존감	.159	.079	.175	2.02	.045*	.023	4.09*
	학업성취	자존감	-.041	.111	-.045	-.37	.711	.061	5.27*
3		교우관계	.273	.109	.306	2.51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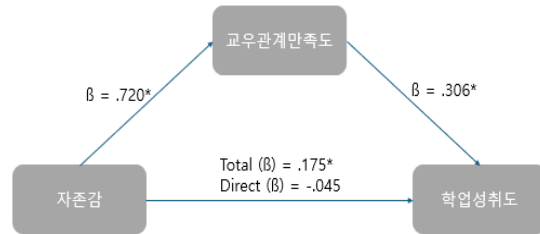
Durbin-Watson = 2.172, VIF = 2.074, 공차 = .482, Max Cook's D = .222

** = $p < .01$, * = $p < .05$

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쳤다($\beta = .306, p = .013$). 그러나 자존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화했다($\beta = -.045, p = .711$).

모든 단계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6 ~ 2.172의 분포를 보여 기준값인 2에 근접하므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음이 확인됐다. 3단계 모형에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VIF는 2.074로 5 미만이고 공차는 0.2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Cook의 거리에서 최댓값은 0.222로 기준값인 1.0을 초과하지 않아 분석 결과를 왜곡할만한 영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Adj. R^2)이 2.3%와 6.1%로 낮은 편이나, 모든 분석 단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교우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는 수많은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2·3단계 회귀모형의 낮은 설명력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오면서 자존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던 유의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사라지고 매개 변수인 교우관계 만족도의 영향력만 유의하게 남았으므로 완전 매개 모형에 해당했다. 즉, 자존감 효과가 교우관계 만족도로 전이되어 자존감이 교우관계 만족도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높아진 교우관계 만족도가 최종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강조하는 언어적 격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자존감 향상을 기반으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그 관계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학업 성과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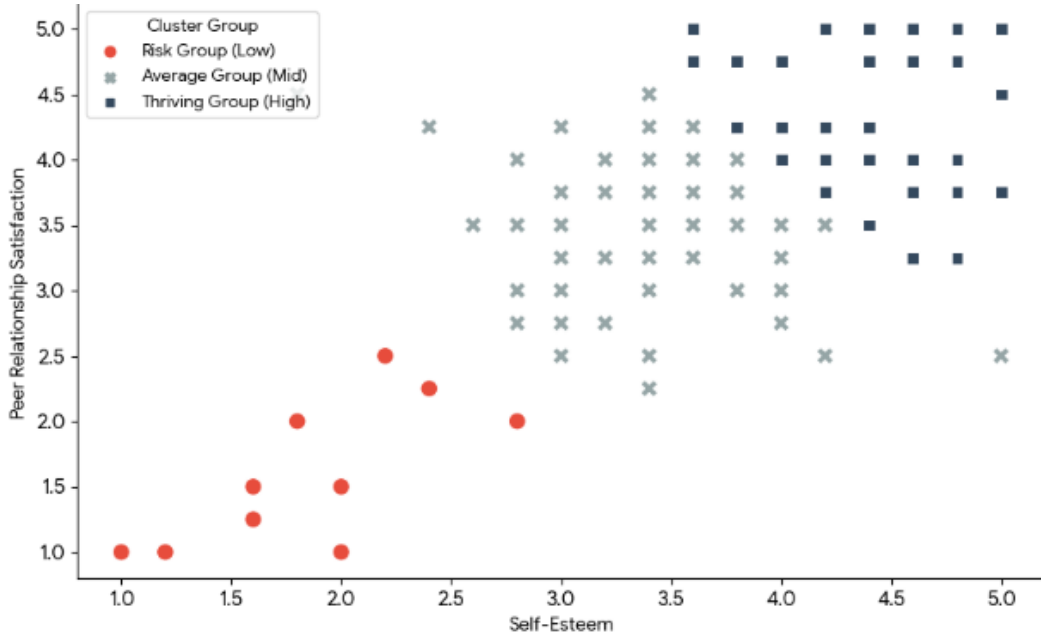
3. RQ3의 결과

‘대학생은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의해 분류되는가?’라는 RQ3를 검증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학생들을 학업성취도와 관련해 성장군(자존감 높음, 교우관계 만족도 높음), 평범군(자존감 보통, 교우관계 만족도 보통), 위험군(자존감 낮음, 교우관계 만족도 낮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개 군집으로의 분류를 시도했다. K-평균 군집분석 결과, 최종 군집 중심에서 성장군은 자존감(4.4)과 교우관계 만족도(4.21)가 가장 높은 군집으로 분류됐다. 평범군은 자존감(3.2)과 교우관계 만족도(3.29)가 두 번째로 높은 군집으로, 위험군은 자존감(1.7)과 교우관계 만족도(1.50)가 가장 낮은 군집으로 나뉘어졌다(표 3, 그림 2).

〈표 3〉 최종 군집 중심

	성장군 (72)	평범군 (48)	위험군 (12)
자존감	4.4	3.2	1.7
교우관계 만족도	4.21	3.29	1.50

분류된 세 군집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 성장군(3.01), 평범군(2.73), 위험군(2.33) 순으로 학업성취도 평균점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앞서 학업성취도의 분산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정을 했다. 그 결과 유의 확률이 .078로 나타나 유의수준 .05 하에서 성장군과 보통군, 위험군 간 학업성취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은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



〈그림 2〉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에 의해 분류된 3개 대학생 군집

에 따라 세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술 통계에선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성적이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분산분석에선 근소한 차이로 유의한 차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군집명은 자존감, 교우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상대적 수준(상·중·하)에 근거해 해석적으로 부여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존감, 교우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 매개효과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교우관계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도,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 두 쌍의 상관관계는 상

대적으로 약한 수준이었다.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의 매우 강한 상관성은 대학생의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핵심적인 내적 동력이 된다는 점, 반대로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 자기 인식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존감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및 교우관계 만족도와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성적이 심리적·사회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을 한 결과, 자존감은 교우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우관계 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만족도를 통제한 이후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존감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였다. 자존감의 효과가 교우관계 만족도로 전이되어 교우관계 만족도가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항상 긍정적인 과제수행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일관되

지 않은 결과들을 교우관계 만족도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다. 자존감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성취에 공헌하는 매개적 인과 기제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이론의 정교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 학업 부진 학생을 지원할 때 자신감을 북돋는 언어적 격려에 머물기보다 이들이 또래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료 멘토링이나 관계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은 학업 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의 결과,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를 기준으로 대학생은 둘 다 높은 집단, 둘 다 중간인 집단, 둘 다 낮은 집단으로 뚜렷하게 군집화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대학생의 내적 요소인 자아 존중감과 외적 요소인 교우관계가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뚜렷한 심리적 프로파일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존감과 교우관계 지표가 모두 낮은 집단에 대해 심리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술 통계상으로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가 모두 높은 집단은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다. 이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업성취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결과임을 시사한다.

한계와 관련해, 본 연구는 대상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동국대학교 3개 학교의 재학생 132명에 국한돼 성별 이외 인구통계학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자발적 응답 표집으로 자료를 수집해 자기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결과를 전체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학업성취도를 정확한 학점 자료가 아닌 구간형 자기 보고

(서열형) 지표로 측정했고 이를 선형회귀로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학점 자료를 활용하거나 서열형 모형을 적용해 결과의 강건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점은 자존감과 교우관계 외에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외생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기술통계상 경향성을 확인했으나 분산분석에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후속 연구와 관련해, 학업성취는 매우 복합적인 결과변수이므로, 자존감 외에도 자기 효능감, 교수자와의 관계, 가정의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변인을 추가한 다변량 분석 모델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입학 시점부터 졸업 시점까지 자존감과 교우관계의 변화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 김영희·고태순(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존감, 삶의 의미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3호: 263-275.
- 전미경·오재우(2019).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 결정성, 대인 관계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제15권 3호: 71-81.
- 이승진·김경근(2015). "가정배경, 양육태도, 교우관계,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2호: 41-66.
- 이연주·최승원(2021). "대학 신입생들의 교우관계를 통한 학업유지 예측",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18권 1호: 31-48.
- 정은선·하정희(2017).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 도움 추구 및 은폐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특성 불안 매개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2호: 639-650.
- 김명아·김지영·김은정(2014). "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자존감과 대인 관계 능력 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2호: 1103-1113.

박슬기(2018). “자존감 2 요인과 성취 목표가 내재적 동기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양지영·김선형(2024). “대학생의 외모 만족도, 자아 존중감, 학습 만족도의 관계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30권 5호: 1114-1123.

Armsden, Gay & Mark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Cassady, Jerrell (2001). “Self-Reported GPA and SAT: A Methodological Note.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7: 1-4.

Rosenberg, Morris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o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Kim, Ga Youn¹, Kim, Sang Yeon¹, Heo, Man Sup²

¹College student, Dept. of Digital Media & Communi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Digital Media & Communi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pecifically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eer relationships.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32 students from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Halla University, and Dongkuk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 employing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Baron & Kenny's three-step mediation analysis, K-means clustering.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r=.720$)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 latter significantly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Notably, the mediation analysis confirmed a 'full mediation effect,' where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cluster analysis, the group with high levels of both self-esteem and peer satisfaction showed a tendency for higher academic performance, though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t is crucial to provide social support systems that foste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emotional support based on self-esteem,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internal psychological traits.

Keywords: self-esteem, peer relationships, academic achievement, mediation effect

* 필자 정보

김가윤, 김상연: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허만섭(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언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미디어이며, 관심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미디어 등이다.

*E-mail: episteme@gwnu.ac.kr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행옥(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노인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노화에 관한 긍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력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노화에 대한 인식이 미래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태도를 결정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성공적 노화, 노인복지 프로그램

I. 서론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처음 20%를 넘어섰다(통계청, 2024). 이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들어선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를 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4). 또한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어서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4). 기대수명은 통계청(2024)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남자 80.5세, 여자 86.5세에 도달하였고,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기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Rowe와 Kahn(1998: 권중돈, 2025재인용)의 노화 수준 구분에서 최적의 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물적·심리적·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화의 긍정적 측면인 성공적 노화에 관심을 갖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권중돈, 2025)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있다. 그러나 정상적 노화 과정 자체만으로는 질병이 유발되지 않으며, 노화되면서 각종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병리적 노화라고 한다(김전, 1999: 권중돈, 2025재인용). 따라서 정상적 노화로 인하여 인간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흡연, 음주,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특정한 위험인자가 개입하게 되면 병리적 노화 과정으로 변환되며,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지적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긍정적 측면인 성공적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권중돈, 2025).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구성요인에는 Rowe와 Kahn(1998: 권중돈, 2025재인용)이 제시한 질병과 장애의 위험 수준이 낮고,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 수준을 유지, 적극적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수준 구분에서 최적의 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물적·심리적·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2. 연구방법

노인복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성공적 노화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1) 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한 노부부

'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한 노부부'는 노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일상을 공유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할머니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고,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요. 일상의 작은 행

II. 본론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노화가 진행될수록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죽음이 질병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화의 결과를 질병과 죽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동에서도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진정한 행복이 느껴져 인상 깊었어요. 참여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남편과, 그 모습을 웃으며 사진 찍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보기 좋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 저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죠.

실제로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3)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55.2%가 부부가구였고, 32.8%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어요. 평균 가구원 수도 2014년 2.2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줄어들었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2020년 20.1%에서 2023년 10.3%로 줄었더라고요. 부부가구 노인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48.6%로 노인 1인 가구(34.2%)보다 높았고, 우울 증상 경험 비율도 7.8%로 노인 1인 가구(16.1%)의 절반 정도였어요. 영양 관리 상태도 부부가구는 71.2%가 ‘양호’라고 응답했지만 노인 1인 가구는 54.4%였어요. 이런 통계를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것이 건강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고, 사회적 고립을 막아준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김 ○○)라고 설명했다.

2)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는 행복한 노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 나란히 앉은 세 명의 여성 노인들은 햇살 아래에서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고, 화사한 옷차림과 생기 넘치는 표정에서는 삶을 즐기는

여유와 만족감이 분명히 드러나요. 이러한 모습은 노년기에도 활기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나타내요. 노년기의 삶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누구와 함께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어 인상 깊었어요. 참여자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3)에 따르면 전체 노인 1인 가구 197만 가구 중 138만 가구가 여성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고, 사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구조적 배경 속에서 많은 한국 여성 노인은 생애 후반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성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즉,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최근 저는 사별을 경험한 노인 분들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많은 여성 노인 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자조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이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구조와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라고 설명했다.

3)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는 얼굴도 나이도 살아온 환경 모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취미가 같기에 모두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것과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나고 즐거운지를 아는 것 같아 인상 깊었어요. 참여자는,

“저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면서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취미활동을 즐기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취미생활을 즐기려면 복지서비스의 다양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살며 취미활동을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빈곤한 삶을 사는 노인도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보장 해줘야 취미 생활이 더 활성화가 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많은 복지관에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있지만 경제 능력이 있어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비용과 생활 안정에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가 될 것 같아요.” (이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4.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1) 건강지원 프로그램

‘리.조.또(요리보고, 조리보고, 또보고)’ 프로그램(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https://skjsenior.org/>)은 혼자 식사하는 1인 가구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요리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은 직접 음식을 계획하고 함께 조리하며, 완성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과정을 통해 식사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프로그램은 기초 영양교육, 조리 실습, 식사 후 대화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요리 교육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제공한다.

‘뇌 튼튼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중랑노인종합복지관 <http://jnnoin.com/eorsin/>)은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퍼즐 맞추기, 기억 퀴즈, 연상 게임 등 두뇌 자극 활동과 그림 색칠,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미술 치료를 함께 진행한다. 여기에 올바른 수면과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법 등 생활습관 교육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인다.

‘뇌건강 학교’ 프로그램(목동어르신복지관 <https://www.mdsi.lver.or.kr/>)은 신체, 인지, 영양, 정서, 사회 5개 영역으로 나뉜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체 영역에서는 우아댄스, 메모핏 등을 통해 근력과 균형을 강화하고 낙상 위험을 예방한다. 인지 영역은 디지털 기반 인지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영양 영역은 요리교실과 영양학습, 푸드테라피를 통해 맞춤형 식단 관리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정서 영역에서는 원예치료, 숲 트레킹, 아로마테라피 등을 통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사회 영역에서는 공연, 전시회, 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고립감을 줄인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실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

‘형성 은빛대학 프로그램(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hscaritas.org/>)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가문화교실에서는 교양과 건강 관련 강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돕는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내외의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방문하는 현장학습 형태로 진행되어 평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래자랑과 작은 운동회는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활동이며, 공모

전 '은빛 인생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로 표현함으로써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정서지원 프로그램

'금쪽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 프로그램(옥천군노인복지관 <http://www.ocbr.or.kr/>)은 마을공동체 기반의 정서, 일상 돌봄 서비스로 지역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구조 속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옥천군 안남면의 3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참여자와 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화, 공감, 정기적인 만남 등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마을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봄 구조를 형성하여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과 영상 자서전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밀착형 정서 지원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타인과의 소통을 촉진하며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다.

'Re:Set 프로그램'(명륜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mlwfc.or.kr/>)은 배우자나 가족을 떠나보낸 사별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실로 인한 고립감과 정서적 위기를 완화하고 노인 스스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상담, 자조모임 형성, 지역 나들이 등의 활동을 통해 노인이 사별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사별 1인 가구 노인들의 자조모임 형성이다. 자조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정서적 효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

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자아 회복과 정서적 치유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사별로 인한 위기 상황을 겪는 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주며, 대처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사회지원 프로그램

'흙토람 도예공방 사업' 프로그램(이천노인종합복지관 <https://www.ichonold.or.kr/>)은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도자기를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노인복지를 잘 연결한 사업이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노인 소득 창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도예 기술이 있는 노인이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예 해설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활동 시간은 월 8회(일 5시간)이며, 월 10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한다. 활동비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3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활동 장소는 흙토람 이천도예공방이며, 활동 분야로 도예체험(흙 빚기, 물레성형, 전사 체험 등 체험교육), 푸드아트(화과자, 에너지바(강정), 화산 빵 만들기 등), 부스 운영(이천시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도자기 제작 및 판매(생활식기, 인테리어 소품 판매)로 나뉘어져 있다. 유아, 초, 중, 고교생은 물론 가족, 장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 답례품 및 기념품 상품 판매도 함께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취미 활동과 경제적 자립 지원이 아닌, 삶의 의미와 역할을 확장해 준다는 점이다. 도예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노후에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레 세대 간 교류가 이뤄져 세대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특히 인구가 줄고 공동체가 약화된 지역에서 공방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고,

지역사회와 노인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Ⅲ. 결론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최종 선택한 것은 ‘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한 노부부’,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이고,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머니 꽃단장해 주는 행복한 노부부’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남편과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보기 좋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 저런 노부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다 (김 OO)라고 설명했다.

둘째,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는 노년기에도 활기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 OO)라고 설명했다.

셋째,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은 노년이 되면 나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고,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취미 활동을 즐기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OO)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진다.

첫째,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것이 심리적 건강과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심리적 영역에서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환경적 요구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고, 사회적 고립을 막아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안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상적인 활동을 자립적으로 하는 것이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이웃이나 친구 관계가 위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관계 유지와 적극적 여가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긍정적 심리상태와 신체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은 건강·정서·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고,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지원 프로그램에는,

‘리.조.또(요리보고, 조리보고, 또보고)’ 프로그램(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https://skjsenior.org/>)

‘뇌 튼튼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중랑노인종합복지관 <http://jnnoin.com/eorsin/>)

‘뇌 건강 학교’ 프로그램(목동어르신복지관 <https://www.mdsilver.or.kr/>)

‘황성은빛대학’ 프로그램(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hscaritas.org/>)

둘째, 정서지원 프로그램에는,

‘금쪽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 프로그램(옥천군노인복지관 <http://www.ocbr.or.kr/>)

‘Re:Set 프로그램(명륜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mlwf.or.kr/>)

셋째, 사회지원 프로그램에는, ‘흙토람 도예공방 사업’ 프로그램(이천노인종합복지관

<https://www.ichonold.or.kr/>)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노년기의 삶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누구와 함께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성공적 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건강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고, 사회적 고립을 막아준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건강 증진, 인지 기능 강화,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회복 등 다각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문제가 삶의 질, 가족관계, 지역사회 참여와 연결된 복합적인 사회복지 이슈라는 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노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Rowe와 Kahn, 1998: 권중돈, 2025재인용)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미래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태도를 결정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http://jnnoin.com/eorsin/>
 흥성군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hscaritas.org/>

참고문헌

- 권중돈(2025). 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노인실태조사.
 통계청(2024). 장래인구 추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명륜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mlwfc.or.kr/>
 목동어르신복지관 <https://www.mdsilver.or.kr/>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https://skjsenior.org/>
 옥천군노인복지관 <http://www.ocbr.or.kr/>
 이천노인종합복지관 <https://www.ichonold.or.kr/>

Abstract

A Study on the Successful Awareness of Aging and Elderly Welfare Program

Hangok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perception of aging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forming a positiv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this study,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as diverse in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aspects.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understood the positive aspects of aging through activities of senior welfare learning clubs and aimed at recognizing successful aging.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investigated the elderly welfare program to determine whether efforts for successful aging were being implemented, and showed a change in perception that continuous efforts were needed for program development. In conclusion, it seems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aging determines their attitude for successful aging in the future and affects the development of elderly welfare programs for successful aging in the social welfare field.

Keywords : Successful Aging, Elderly Welfare Program

*** 필자 정보**

이행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가족복지 및 노인복지이다.

*E-mail: holee1@gwnu.ac.kr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덕연 · 이현수 · 김윤서 · 정세림 · 신유정(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최선하(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연구목적: 스마트폰은 학습, 정보 탐색, 여가 활동 등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서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며, 학습몰입을 방해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편의추출된 대학생 130명이다. 자료수집은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2025), 정신건강은 한국판 일반건강 설문지(박종익 외, 2012), 학습몰입은 학습몰입척도(김아영 외, 201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는 평균 22.16 ± 6.08 점으로 중간 점수(25점)보다 조금 낮았다. 학습몰입은 평균 156.01 ± 29.72 점으로 중간 점수(161점)보다 조금 낮았다. 정신건강은 평균 36.29 ± 5.96 점으로 중간점수(30점) 보다 높아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군(평균 20.46점)과 과의존 위험자군(평균 30.93점)으로 나누어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했을 때, 일반 사용자군(37.80 ± 5.82)의 정신건강이 과의존 위험자군(34.16 ± 5.53) 보다 좋았다($t = 3.58, p < .001$). 학습몰입은 일반 사용자군과 과의존 위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고($r = -.40, p < .001$),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습몰입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학습몰입도 높았다($r = .24, p = .005$).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beta = -.40, p <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6%였다($F = 25.59, p < .001$). **결론:**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학습몰입도 높았다. 이에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 관리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 및 생활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입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대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학생에게 스마트폰은 학습, 정보 탐색, 시간 관리, 인간관계 유지, 여가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캠퍼스 생활과 일상 모두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교육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수업 출결 확인, 학습 자료 열람, 팀 과제 협업, 실시간 알림 수신 등에서 스마트폰의 활용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김유미, 이종율, 2024). 이러한 추세는 스마트폰이 대학생활에서 편리함과 즉시성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용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한다.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성과 의존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존재한다. 지나치게 빈번한 스마트폰 사용은 사용자의 자기조절력을 약화시키고,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명확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는 가운데 현실보다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는 일상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김유미, 이종율, 2024). 특히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증상, 내성과 같은 요소들은 과의존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김유미, 이종율, 2024).

실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이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응답자 중 80% 이상이 본인의 스마트폰 과다 이용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자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단순한 습관적 사용을 넘어, 자

기통제 실패 및 행동 중독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몰입을 방해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 및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다(김유미, 이종율, 2024). 또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일상생활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체활동 감소, 수면 패턴 불균형, 불규칙한 식사, 대인관계 단절 등 전반적인 삶의 리듬을 파괴하여 건강증진생활양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유미, 이종율, 2024).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될 경우, 학업 몰입의 저해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은지, 2019). 특히 또래와의 관계 유지나 외부 정보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은 감소하고, 수업 몰입도와 과제 집중도가 낮아지는 등 교육적 부작용도 야기된다(김유미, 이종율, 2024).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또는 일반 성인 대상의 연구, 특정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수준을 파악한다.
2.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에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W시 관내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편의표집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1-\beta=0.8$, 효과크기는 중간크기로 0.15, 독립변수 10개로 산정하여 11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3개의 하위요인(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조절 실패 .921, 현저성 .780, 문제적 결과 .750로, 총 .902 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2이었다.

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일반건강 설문지(박종익 외, 201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두 개의 하위요인(우울 및 불안, 사회적 역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선별조사 시 유용한 도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더 높도록 수치화하였다. 설문 문항 중 1, 3, 4, 7, 12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79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0 이었다.

3)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수업이나 과제와 같은 학습 활동에 몰입하며 시간의 흐름이나 주변 환경을 잊고 온전히 학습에 집중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Czikszentmihalyi, 1990).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습몰입척도(김아영 외, 2010)를 이용하였으며, 사전에 원저자로부터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총 46문항이며,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도전과 기술의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과 지각의 일치, 과제에 대한 전적인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변형된 시간의 느낌, 자기목적적 경험).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 까지 6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927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8이었다.

4.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자료수집은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구글 폼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 수를 설정한 후 대상자 수가 다 채워지면 설문조사가 끝나도록 설정하였다. 각 대학의 단체 게시판, SNS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 글을 올린 후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 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동의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 URL을 자의로 연결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목적을 확인한 후,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에 체크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수집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으로 데이터화 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이 83명(63.8%), 남성이 47명(36.2%)이었다. 연령은 17세~20세 46명(31.5%), 21세~23세 63명(48.5%), 24세 이상이 21명(16.1%)으로 21세~23세가 절반 수준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62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 32명(24.6%), 3학년 20명(15.4%), 2학년 16명(12.4%) 순으로 많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만족 이상이 77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47명(36.2%), 만족하지 않음이 6명(4.6%)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SNS가 72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예: 다 이렉트 메시지(DM), 카카오톡, 메시지) 44명(33.8%), 정보검색 7명(5.4%), 게임 3명(2.3%), 학업 3명(2.3%), OTT 시청 1명(0.8%) 순이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0)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47	36.2
	여성	83	63.8
연령(세)	17~20	46	35.4
	21~23	63	48.5
	24~26	18	13.8
	27~30	3	2.3
학년	1학년	32	24.6
	2학년	16	12.4
	3학년	20	15.4
	4학년	62	47.7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음	0	0
	만족하지 않음	6	4.6
	보통	47	36.2
	만족함	65	50.0
	매우 만족함	12	9.2
주로 사용하는 기능	SNS	72	55.4
	커뮤니케이션(카카오톡, 메시지)	43	33.1
	정보검색	8	6.2
	학업	3	2.3
	게임	3	2.3
	OTT 시청	1	0.8
하루 사용 시간	1~2시간 미만	2	1.5
	2~3시간 미만	16	12.3
	3~4시간 미만	29	22.3
	4시간 이상	83	63.8

〈표 2〉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수준 (N=130)

특성	M±SD	최소값-최대값	범위
스마트폰 과의존	22.16±6.08	10-40	10~40
정신건강	36.29±5.96	21-48	12~48
학습몰입	156.01±29.72	96-239	46~276

간은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대학생이 82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3~4시간 30명(23.1%), 2~3시간 16명(12.3%), 1~2시간이 2명(1.5%) 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수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는 평균 22.16±6.08 점으로 중간 점수(25점)보다 조금 낮았다. 정신건강은 평균 36.29점±5.96점으로 중간점수(30점) 보다 높아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학습몰입은 평균 156.01±29.72점으로 중간 점수(161점)보다 조금 낮았다(표 2).

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자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에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 차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에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자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에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 차이 (N=130)

구분	정신건강		학습몰입	
	M±SD	t(p)	M±SD	t(p)
일반 사용자군(n=76)	37.80±5.82	3.58(<.001)	157.59±28.82	0.72(0.475)
과의존 위험자군(n=54)	34.16±5.53		153.79±31.08	

〈표 4〉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N=130)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r(p)		
스마트폰 과의존	1		
정신건강	-.40(<.001)	1	
학습몰입	-.14(.109)	.24(.005)	1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40점 만점에 24점 이상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정신건강 수준은 34.16±5.53점, 일반 사용자군은 37.80±5.82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8, p<.001). 즉 일반사용자군의 정신건강이 과의존 위험군에 비해 더 좋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학습몰입은 153.79±31.08 점, 일반 사용자군은 157.59±28.82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2, p=.475).

4.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할수록 정신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다(r=-.40, p<.001). 반면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습몰입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r=-.14, p=.109). 또한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학습몰입은 높았다.

〈표 5〉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N=130)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 ²
	B	SE	β			
(상수)	45.16	1.81		24.83(<.001)	25.59(<.001)	.16
정신건강	-.40	.079	-.40	-5.05(<.001)		
(상수)	171.32	9.83		17.42(<.001)	2.65(.109)	.02
학습몰입	-.690	.42	-.14	-1.6(.109)		

다(r=.24, p=.005)

5.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F=25.59, p<.001).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신건강을 16% 설명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이 1 증가할 때 정신건강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 t=-5.05, p<.001).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5).

IV.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는 평균 22.16±6.08 점으로 중간 점수(25점)보다 조금 낮았다. 정신건강은 평균 36.29점±5.96점으로 중간점수(30점) 보다 높아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학습몰입은 평균 156.01±29.72점으로 중간 점수(161점)보다 조금 낮았다.

대상자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자군(24점 이상)과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41.5%가 과의존 위험자군에 해당하였으며, 하루에 스마트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대상자는 63.1% 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가 일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생활 전반에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자군과 일반 사용자군 간의 비교에서, 과의존 위험자군의 정신건강 점수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더 낮았다(p<.001).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과 연관된다는 기존 연구(Elhai et al., 2017)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학습몰입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김유미, 이종울, 202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이러한 차이는 측정도구가 다르며 분석 단위(하위요인 별 분석 대 총점 수준의 분석)가 다르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할수록 정신건강 상태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위축 등을 유발해 정신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유미, 이종울, 2024)와 일치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한 사용시간 증가가 아닌 자기조절 실패, 행동 중독적 속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상태와 심리문제는 대학생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김유미, 이종울, 2024). 특히 자기조절 실패나 SNS 비교, 수면 부족 등 스마트폰 과의존과 연계된 행동들은 대학생의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정신건강과 학습몰입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p=0.005$)가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이 양호할수록 학습몰입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유미, 이종율, 2024). 정신건강이 양호한 학생일수록 집중력,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 학업에 몰입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 저하는 학습 참여도와 학습 지속력을 저해한다는 연구(김미정, 박재홍, 2024)가 있어서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습몰입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유미와 이종율(2024)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 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이 학습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도구의 차이, 분석단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단지 사용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행동 패턴이 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유미, 이종율, 2024). 또한 스마트폰 사용의 영향은 스마트폰 사용 목적, 시간 관리 능력, 학습 동기 등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목적과 내용(예: 학습, 소통, 오락 등)을 세분화하여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악화된 정신건강이 다시 학습몰입을 떨어뜨리는 경로가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자체가 직접적으로 학습 의욕이나 집중력을 꺾기보다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발한 정신적 피로와 정서 불안정이 학습 참여를 방해하는 매개 과정을 거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불안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 근거한다(Zhang & Zeng, 2024)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건강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생의 학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의존 문제가 아닌 정신건강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그 심리적, 학업적 함의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신건강의 매개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스마트폰 과의존 개입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스마트폰 사용의 목적과 내용(예: 학습, 소통, 오락 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 둘째, 정신건강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요인(예: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 셋째, 학업성과(예: 성적, 과제 수행도, 수업 참여도 등)와의 연계 분석 연구, 넷째,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을 매개하여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은 나빠지며,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학습몰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은 학습몰입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 관리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 및 생활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정신건

강을 증진시키는 개입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미정, 박재홍(2020).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6(4): 421-429.
- 김아영, 이채희, 탁하얀(2010).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4(1): 39-59.
- 김유미, 이종율(2024). “스마트폰 과의존이 건강증진생활양식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4(6): , 207-222. <https://doi.org/10.37272/JIECR.2024.12.24.6.207>
- 박종익, 김영주, 조맹제(2012). “한국판 일반 건강 설문지의 요인 구조”, 『신경정신의학』, 51: 178-184.
- 이은지(2019).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영향요인 비교: 제7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5(2): 165-174. <https://doi.org/10.4094/chnr.2019.25.2.165>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Elhai J. D., Dvorak R. D., Levine J. C., & Hall B. J.. (2017).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conceptual overview and systematic review of relations with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7: 251-259.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 “Mental health: Strengthening our respons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health-strengthening-our-response>
- Zhang, J., & Zeng, Y. (2024). “Effect of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Anxiety and Moderating Role of Sense of Academic Control”.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7: 933-944. <https://doi.org/10.2147/PRBM.S442924>

Abstract

The Impa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Learning Engagement

Kim, Deok Yeon¹ · Lee, Hyun Soo¹ · Kim, Yun Seo¹ · Jeong Se Rim¹ · Shin, Yoo Jeong¹ · Choi, Sun-Ha²

¹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vel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mental health and learning engagement.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survey design.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30 college students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lin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pril 14 to April 21.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martphone overdependence score among college students was 22.16 ± 6.08 , which was slightly lower than the midpoint score (25). The mean learning engagement score was 156.01 ± 29.72 , which was slightly lower than the midpoint score (161). Mental health showed a mean score of 36.29 ± 5.96 , exceeding the midpoint of 30 and indicating a favorable mental health status. When mental health status was analyzed by dividing smartphone users into a general user group (mean score=20.46) and a smartphone overdependence risk group (mean score=30.93), the general user group demonstrated better mental health (37.80 ± 5.82) than the overdependence risk group (34.16 ± 5.53) ($t=3.58, p<.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engagement between the general user group and the smartphone overdependence risk group.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ental health ($r=-.40, p<.001$).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learning engagement. Mental health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engagement ($r=.24, p=.005$).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beta=-.40, p<.001$), explaining 16% of the variance ($F=25.59, p<.001$). **Conclu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confirmed to be a negative influencing factor on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Furthermore, higher levels of mental health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learning engag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nag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is crucial for improving their learning effectiveness. Therefore, educational settings and everyday contexts should continuously assess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college students, provide systematic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 to alleviate it, and concurrently consider interventions aimed at enhancing mental health.

Keywords: Smartphone overdependence, Mental health, Learning engagement, College students

* 필자 정보

김덕연, 이현수, 김윤서, 정세림, 신유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다.

최선하(교신저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지역사회간호학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건강증진, 보건교육, 학교보건 등이다.

*E-mail: choish@gwnu.ac.kr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루다(조은아이어린이집 원장) · 김현정(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만 5세에서 7세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을 문헌분석 방법으로 종합한 것이다. 총 20편의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아동의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이야기 구성력, 표현력 등 다양한 언어 능력에 대한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동화책은 시청각 자극과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어휘력 향상에 효과적인 반면, 인쇄 동화책은 이야기 구조의 이해와 창의적 언어 표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체의 유형보다도 교사나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 읽기 활동의 구조화 여부가 언어발달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복적 읽기와 질문 유도 방식은 특수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자극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두 매체의 효과를 이분법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언어교육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디지털 동화책, 인쇄 동화책, 유아 언어발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아동의 언어발달은 이후 학습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쇄 동화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동화책(e-book)이 널리 사용되면서, 매체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만5세~만7세)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강명실, 2023).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책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한민경 외, 2016).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의 장점을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동화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경미, 2019). 그림, 소리, 애니메이션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아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강명실, 2023). 둘째, 디지털 동화책은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하여 아동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한민경 외, 2016).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하면 단어의 발음이 제공되거나 특정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이경미, 2019).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력 확장과 문장 이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명실, 2023). 셋째, 인쇄 동화책은 아동의 집중력을 높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한민경 외, 2016). 디지털 동화책과 달리 인쇄 동화책은 외부 자극이 적어 아동이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경미, 2019). 넷째, 인쇄 동화책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명실, 2023).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주면서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어발달이 촉진된다(한민경 외,

2016). 다섯째, 디지털 동화책은 아동의 독립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반면, 인쇄 동화책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이경미, 2019). 따라서 두 매체의 장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강명실, 2023).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디지털 기술이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한민경 외, 2016).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음성 내레이션, 애니메이션, 상호작용 기능 등)를 포함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반면, 인쇄 동화책은 직접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호세인 시아푸쉬, 마수메 말레키, 2024) 이러한 차이점이 영아의 어휘 습득, 문장 이해, 이야기 구조 파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동 교육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종이책을 통해 독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동화책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 동화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다. 그림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며, 직접 화면을 터치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단순한 재미 요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에 실증적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인쇄 동화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성인과 함께 읽는 과정에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성인이 직접 책을 읽어 주며 질문을 던지거나 아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에 디지털 동화책에서는 이런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아동의 언어 습득이 둔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과 직접 책을 넘기며 읽는 것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차이 또한 연구에 의해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방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이 편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각각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통해,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 연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심화하여, 부모와 교육자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지심리학적 관점

1) 인지 심리학과 언어 발달

인지 심리학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기억, 학습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 발달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언어는 사고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정보를 조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왔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특히 언어 입력(input)의 방식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접하는 언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언어 습득 속도와 질이 달라질 수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언어 입

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발달 과정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김민하, 2015).

인지 심리학과 아동 언어 발달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Piaget(1959)는 아동의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기호적 기능이 획득되면서 언어 사용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Gopnik & Meltzoff(1986)는 아동이 대상 영속성 개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갸어’, ‘없어’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French & Nelson(1985)는 아동이 인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점에서 ‘때문에’, ‘없어서’ 등의 표현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Vygotsky(1978)는 언어가 사고를 촉진하는 매개적 기능을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인지 발달을 이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혼잣말(private speech)이 사고를 조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Vygotsky, 1962). Bowerman(1985)는 아동의 문법 발달에서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어 구조가 인지적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Choi(1997)는 초기 언어 발달에서 인지 능력과 언어 입력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다. Nelson(1996)은 아동이 언어와 개념을 함께 배우며, 이 둘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 Carey(1978, 1982)는 아동이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신속하게 추론하는 신속표상대응(fast mapping) 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설명했다. Flavell et al.(1993)은 아동이 기존 인지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고 보았다. Witkin et al.(1971)은 장 독립(Field Independent) 성향이 높은 아동이 언어 학습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동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으로 발달하며, 언어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Vygotsky, 1978). Piaget(1959)는 아동의 사고가 발달하면서 언어가 이를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Nelson(1996)은 언어가 아동의 개념 형성을 돕는다고 설명하며, Bowerman(1985)는 아동이 언어를 배우

면서 인지적 범주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Choi(1997)는 아동이 두 언어를 배울 때 인지적 변화가 발생하며, 언어가 인지 발달을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Carey(1978)는 아동이 하루 평균 9개의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며, 이를 기존 인지 구조와 결합한다고 밝혔다. Flavell et al.(1993)은 아동이 언어를 통해 개념을 확장하며, 이를 인지 발달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다. Vygotsky(1962)는 언어가 사고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의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Piaget(1959)는 아동의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사고가 언어보다 선행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인지 심리학과 아동 언어 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는 아동의 사고를 구조화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간다.

2) 디지털 동화책 vs 인쇄 동화책 : 인지적 차이점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인지 능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Gee, 2003). 반면, 인쇄 동화책은 아동이 직접 책을 넘기며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euman & Dickinson, 2001). Bus et al.(2015)은 디지털 동화책이 아동의 어휘 습득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애니메이션과 음성 지원이 아동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orat & Shamir(2012)는 디지털 동화책이 지나치게 시각적 요소에 의존할 경우, 아동이 이야기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ucirkova et al.(2017)은 디지털 동화책이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습 속도에 맞춘 언어 발달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Sénéchal et al.(1998)은 인쇄 동화책을 부

모와 함께 읽는 과정에서 아동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언어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Reinking(2005)은 디지털 동화책이 아동의 읽기 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특히 시각적 보조 자료가 아동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arish-Morris et al.(2013)은 디지털 동화책이 지나치게 자동화된 기능을 포함할 경우, 아동이 능동적으로 언어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akacs et al.(2015)은 디지털 동화책이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음성 지원 기능이 아동의 언어 습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Mol & Bus(2011)은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의 방식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반면, 인쇄 동화책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동화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첫째, 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디지털 동화책은 시각적·청각적 요소가 풍부하여 멀티모달(multimodal) 정보 처리를 촉진하고 있다(김민하, 2015). 즉, 아이들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애니메이션, 음성 내레이션 등을 동시에 경험하며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인쇄 동화책은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들은 단일모달(unimodal) 정보 처리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이는 집중력과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김민하, 2015).

둘째, 주의 집중과 인지 부하와 관련한다면, 디지털 동화책은 다양한 인터랙티브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 제공으로 인해 인지 부하(cognitive load)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인쇄 동화책은 비교적 단순한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셋째, 기억과 학습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동화책은 애니메이션과 음성 지원을 통해 작동 기억(working memory)을 활성화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김민하, 2015). 인쇄 동화책은 아이들이 직접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3)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의 언어 발달 효과

(1) 어휘 습득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강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민하, 2015). 인쇄 동화책은 아이들이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2) 문장 구조 이해

디지털 동화책은 음성 내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문장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인쇄 동화책은 아이들이 직접 문장을 읽으며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다(김민하, 2015).

(3) 이야기 이해 및 사고력

디지털 동화책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 요소

가 있어서 이야기 이해를 돕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동화된 정보 제공은 자기 주도적 사고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인쇄 동화책은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2.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1)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의 개념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은 언어 발달이 단순한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비고츠키, 1978). 이 이론은 특히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문화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언어 습득이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비고츠키, 1986).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개념을 통해 아이들이 성인의 도움을 받아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고츠키, 1978). 즉, 아이들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서 언어 능력을 확장하게 된다(권희경, 2012).

2)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의 언어 발달 교육적 시사점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언어발달은 단순한 개인의 학습 과정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비고츠키, 1986). Vygotsky(1978)는 언어가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아동이 성인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접 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개념을 통해, 아동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사회적 도움을 통해 해결하면서 언어와 사고가 함께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Bruner(1983)는 비계설정(scaffolding) 개념을 도입하여, 성인이나 교사가 아동의 학습을 돕는 방식이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이 새로운 언어적 개념을 습득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념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omasello(2003)는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ality)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이 성인과 공동 주의를 기울이며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언어발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적으로 아동이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Rogoff(1990)는 참여적 학습(apprenticeship learning) 개념을 통해, 아동이 사회적 환경에서 능숙한 성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습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이 단순히 언어를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를 내면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적으로 아동이 교실에서 단순한 언어 연습을 넘어, 실제 대화와 협력 활동을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Neuman & Dickinson(2001)은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한다고 설명하며, 가정에서의 언어 환경이 아동의 언어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적으로 부모가 아동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며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Kucirkova et al.(2017)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학습 도구가 아동의 언어 습득을 돕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은 언어발달이 단순한 개인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적으로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와 부모는 아동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의 방식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Gee, 2003). 특히 애니메이션과 음성 지원 기능은 아동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Kucirkova et al., 2017). 그러나 Korat & Shamir(2012)는 디지털 동화책이 지나치게 시각적 요소에 의존할 경우, 아동이 이야기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쇄 동화책은 아동이 직접 책을 넘기며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euman & Dickinson, 2001). Sénéchal et al.(1998)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언어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Mol & Bus(2011)는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읽기가 아동의 언어발달과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디지털 동화책은 아동의 읽기 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언어발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Takacs et al., 2015). 반면, 인쇄 동화책은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Reinking, 2005).

결론적으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의 방식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쇄 동화책이 보다 깊은 언어적 사고 능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동화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언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권희경, 2012).

3)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의 사회적 상호작용 차이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이에 따라 언어 발달 과정에도 차이가 발생한다(산티아고순레길, 2024).

(1) 디지털 동화책의 사회적 상호작용

디지털 동화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희경, 2012). 예를 들어, 터치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단어를 클릭하면 발음이 제공되거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티아고순레길, 2024).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디지털 동화책이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고츠키, 1986). 부모가 아이와 함께 디지털 동화책을 읽으며 화면을 터치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권희경, 2012). 그러나 디지털 동화책이 지나치게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할 경우, 아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산티아고순레길, 2024).

(2) 인쇄 동화책의 사회적 상호작용

인쇄 동화책은 부모와 아이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비고츠키, 1978).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발달이

이루어진다 (권희경, 2012). 특히, 인쇄 동화책은 아이들이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산티아고순레길, 2024).

3.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은 학습자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1)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의 개념 및 교육적 시사점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은 학습자가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Mayer, 2001). 즉, 단순한 텍스트 기반 학습보다 이미지, 소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학습 환경이 인지적 처리 과정을 강화할 수 있다 (Sweller, 1994). 이 이론은 이중 채널 처리 모델(Dual-channel processing model)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뇌가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각각 다른 경로로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Mayer, 2005). 따라서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언어 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인쇄 동화책은 보다 깊이 있는 언어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Kim & Lee, 2017).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으로, 특히 아동의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yer(2001)는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에서 학습자가 시각적 및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때 인지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습 효과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 채널 처리 모델(Dual-channel processing model)을 통해, 인간의 뇌가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각각 다른 경로로 처리하며 이를 통합하여 학습한다고 주장했다. Gee(2003)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멀티미디어 요소가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습득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Kucirkova et al.(2017)은 디지털 학습 도구가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맞춤형 콘텐츠가 개별 학습 속도에 맞춰 제공될 때 언어 습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Takacs et al.(2015)은 멀티미디어 기반 학습이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음성 지원 기능이 아동의 언어 습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Mol & Bus (2011)은 인쇄된 텍스트보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 아동의 어휘 습득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Reinking(2005)은 디지털 동화책이 아동의 읽기 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특히 시각적 보조 자료가 아동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arish-Morris et al.(2013)은 디지털 동화책이 지나치게 자동화된 기능을 포함할 경우, 아동이 능동적으로 언어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m et al.(2020)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언어 장애 아동 중재 연구에서, 증강현실 기반의 언어 중재가 아동의 어휘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언어 발달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euman & Dickinson(2001)은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한다고 설명하며, 가정에서의 언어 환경이 아동의 언어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적으로 부모가 아동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며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각적 및 청각적 요소를 활용한 학습이 아동의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동화된 기능이 아동의 능동적 탐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학습을 활용할 때는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언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2)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의 멀티미디어 학습 효과 비교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언어발달을 촉진하며,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정보 처리 방식

디지털 동화책은 시각적·청각적 요소가 풍부하여 멀티모달(multimodal) 정보 처리를 촉진한다 (Mayer, 2009). 즉, 아이들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애니메이션, 음성 내레이션 등을 동시에 경험하며 언어를 습득한다 (Sweller, 1994, 인지 부하 이론). 인쇄 동화책은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들은 단일모달(unimodal) 정보 처리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이는 집중력과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Kim & Lee, 2017).

(2) 주의 집중과 인지 부하

디지털 동화책은 다양한 인터랙티브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만, 인지 부하(cognitive load)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Sweller, 1994). 즉, 너무 많은 시각적·청각적 정보가 제공될 경우 아이들이 핵심적인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Mayer, 2005). 인쇄 동화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언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깊이 있는 언어 이해와 사고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 & Lee, 2017).

(3) 기억과 학습 효과

디지털 동화책은 애니메이션과 음성 지원을 통해 작동 기억(working memory)을 활성화시키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Mayer, 2009). 인쇄 동화책은 아이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을 강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Kim & Lee, 2017).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만 5세에서 7세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문헌연구이다. 따라서 실험집단이나 설문 응답자와 같은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범위와 성격을 통해 간접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문헌들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학술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기사 등 총 30편이며, 이들 문헌은 모두 만 5세에서 7세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디지털 동화책 또는 인쇄 동화책을 활용한 언어발달 관련 실험이나 관찰을 수행한 연구들이다. 특히, 이경미(2019), 권성민(2010), 김희동(2020) 등의 연구는 서울, 경기, 경북 지역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연구마다 20명에서 60명 규모의 유아집단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언어능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간접적인 연구대상은 국내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5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험이나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식이 아닌,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도구는 물리적 측정 도구가 아닌 문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문헌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 자료 선정 기준

문헌 수집을 위해 활용한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DBpia, KISS(한국학술정보), ScienceON, 국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Google Scholar,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이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논문, 학위논문, 학술지 기사, 정부 및 교육기관의 보고서 등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문헌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제 적합성은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만 5세에서 7세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실험연구, 비교연구, 메타분석 등 실증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대상 명확성은 연구 대상이 명확하게 만 5세~7세 유아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의 타당성은 실험 설계가 명확하고, 언어발달 측정 도구(어휘력 검사, 이야기 이해력 검사 등)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의 구체성은 연구 결과가 수치나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의 한계와 제언이 명확하게 기술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연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2) 데이터 분석 방식

문헌 수집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수집된 문헌을 연도별, 연구방법별, 동화책 유형별(디지털/인쇄), 언어발달 측정 항목별

〈표1〉 문헌수집 리스트

번호	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대상
1	이경미(2019)	멀티미디어 동화 읽기의 언어발달 및 사고력 효과 분석	만 5세 유아 40명(서울 강서구 유치원)
2	권성민(2010)	동화 들려주기 방법별 언어 및 사고력 효과 비교	만 5세 유아 60명(대구 H유치원)
3	김희동(2020)	디지털 동화책 활용 효과 측정	만 6세 아동 30명
4	김정주, 류혜숙(2010)	디지털 vs. 인쇄 동화책의 이야기 구성력 비교	만 6세 유아 36명
5	심경화 외(2019)	그림책 활용 활동의 언어발달 효과 메타분석	메타분석(총 32편 분석)
6	한천숙(2018)	디지털 매체 활용 동화 읽기의 언어 및 사회성 효과 분석	만 5세 유아 50명
7	이은영, 전유영(2012)	그림책 통합활동이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만 6세 유아 40명
8	조한익 외(2014)	부모-자녀 상호작용 중심 동화책 읽기 효과 분석	만 5세 유아 30명과 부모
9	정재후, 김명순(2003)	동화 유형과 읽기 수준에 따른 이야기 이해 차이 분석	초등 저학년 아동 60명
10	이문옥(2003)	그림책 활용 방안 연구	문헌연구
11	이연경, 김화수(2022)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말 늦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말 늦은 아동 3명
12	이명숙, 전병운(2015)	장애아동 대상 동화 활용 언어증재 연구 동향 분석	문헌연구(37편 분석)
13	김혜옥(2009)	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문헌연구
14	박현옥, 김정현(2013)	동화책 활용 언어증재가 자폐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폐 스펙트럼 아동 2명
15	김영분, 조정연(2007)	이야기 구조 지도와 동화 활용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학급 아동 6명
16	이정원, 이소현(2002)	동화책 활용이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표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 아동 4명
17	김현정, 박애자(2007)	동화책 활용이 언어지체 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지체 아동 5명
18	유인숙, 손은남(2007)	동화책 활용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만 5세 유아 30명
19	강은영, 강은희(2007)	동화책 활용이 언어지체 아동의 문장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지체 아동 3명
20	이은주(2014)	전자책과 인쇄책의 어휘 학습 효과 비교	발달지체 아동 4명

〈표2〉 문헌수집 동화책 유형, 언어발달 측정 항목, 연구 결과

번호	연구 결과	연구의 한계
1	인쇄책보다 교사 낭독이 언어·사고력 향상에 더 효과적임	표본 지역이 한정적, 장기 효과 미확인
2	멀티미디어 동화가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디지털 구성 요소별 효과 분석 부족
3	초기 학습에는 효과 있으나 반복 시 집중력 저하 가능	연구 기간이 단기임
4	인쇄책 사용 집단의 이야기 구조 이해 능력이 더 우수함	디지털 책의 요소별 분석이 부족함
5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효과 큼. 부모-자녀 공동 활동이 가장 효과적임	디지털 매체 활용 연구는 제한적으로 포함됨
6	디지털 동화책이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 있음	언어발달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 부족
7	통합활동을 통한 언어표현력 향상 확인	비교집단 없이 단일집단 실험
8	부모와 함께 읽을 때 언어발달 효과가 가장 큼	실험 기간이 짧고 후속 효과 미확인
9	인쇄 동화책이 이야기 구조 이해에 더 효과적임	유아 대상이 아닌 점에서 제한 있음
10	그림책이 언어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 제시	실증적 자료 부족
11	부모교육을 통한 동화책 활용이 언어발달에 긍정적 효과	표본 수가 적고 일반화 어려움
12	동화 활용이 다양한 장애 유형에 효과적임	동화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13	그림책 활용이 언어발달에 효과적임	실증적 분석보다는 경향 분석 중심
14	반복적 동화 읽기가 언어 이해에 긍정적 영향	사례 수가 적고 일반화 어려움
15	이야기 구조 지도 병행 시 효과가 더 큼	비교집단 없음
16	반복적 읽기와 질문이 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임	장기적 효과 분석 부족
17	반복적 읽기와 그림 설명이 어휘력 향상에 효과적임	통제집단 없음
18	이야기 재구성 활동이 이해력 향상에 효과적임	실험 기간이 짧음
19	문장 완성 활동 병행 시 효과가 큼	사례 수가 적음
20	반복적 읽기와 질문 활동이 효과적임	장기적 유지 효과 미확인

〈표3〉 문헌수집 동화책 유형, 언어발달 측정 항목, 연구 결과

번호	동화책 유형	언어발달 측정 항목
1	디지털+교사 낭독	어휘력, 이야기 이해, 사고력
2	인쇄 vs. 멀티미디어	어휘력, 창의적 표현, 사고력
3	디지털 동화책	어휘력, 이야기 이해
4	디지털 vs. 인쇄	이야기 구성력
5	인쇄 매체 중심	전반적 언어 발달 요인
6	디지털 동화책	어휘력, 표현력, 사회성
7	인쇄 동화책	언어표현력
8	인쇄 동화책	어휘력, 상호작용 언어
9	전자 vs. 인쇄 동화책	이야기 이해력
10	인쇄 동화책	언어발달 전반
11	인쇄 동화책	표현 어휘, 언어발달
12	인쇄 동화책	수용언어, 표현언어, 이야기 구성력
13	인쇄 동화책	언어발달 전반
14	인쇄 동화책	수용언어, 표현언어
15	인쇄 동화책	이야기 산출력, 어휘력
16	인쇄 동화책	표현언어, 문장 구성력
17	인쇄 동화책	어휘력
18	인쇄 동화책	이야기 이해력
19	인쇄 동화책	문장 구성력
20	인쇄 동화책	수용언어, 표현언어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표현력 등)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문헌의 연구 목적, 연구대상, 사용된 동화책의 특성, 언어발달 측정 도구,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의 한계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표를 바탕으로, 문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경향성, 상반된 결과, 연구의 공백 영역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문헌에서 제시한 후속 연구 제언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 반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도구는 문헌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어 설정, 문헌 선정 기준, 분석 항목 구성, 비교 분석을 위한 체계적 분류표 작성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문헌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및 분석

1) 연구 시기의 분포 및 관심 주제의 변화

국내에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다. 초기 연구 ‘이문옥, 2003; 정재후·김명순, 2003’는 주로 인쇄 동화책을 활용한 언어 자극 효과에 집중하였으며, 이야기 이해력이나 문장 구성력 등 언어의 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매체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동화책을 활용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었으며 ‘권성민, 2010; 김희동, 2020’, 디지털 환경에서의 언어발달 효과, 교사·부모와의 상호작용 유무, 디지털 콘텐츠의 구성 요소(애니메이션, 소리, 터치 기능 등)

에 따른 차별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으로 관심이 세분화되었다.

2) 연구방법 및 대상의 경향

대부분의 연구는 만 5세~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아동이 중심이었다. 실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전후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이경미, 2019), 비교집단을 설정한 양방향 설계가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언어지체 아동, 자폐 스펙트럼 아동, 지적장애 아동 등 특수 아동 대상 연구(박현옥·김정현, 2013; 이정원·이소현, 2002)도 함께 이루어져 연구의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사례 연구나 문헌 연구 형식으로 유아 언어교육 분야의 전반적 동향과 연구 공백을 조망하고 있다(김혜옥, 2009).

3) 언어발달 측정 항목의 확장

언어발달 측면에서 초기 연구는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문장 구성력에 집중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표현력, 창의적 이야기 구성력, 상호작용 언어 능력, 사고력 등 언어의 질적·정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반복 읽기와 그림 해석 활동, 교사 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언어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조한익 외, 2014; 유인숙·손은남, 2007).

4) 디지털 동화책 vs 인쇄 동화책의 효과에 대한 공통적 견해

국내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동화책이 시청각 자극과 터치 등 흥미 유발 요소가 풍부하여 초기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김희동, 2020). 애니메이션, 음성 내레이션 등은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어휘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인쇄 동화책은 교사 또는 보호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페이지 전환 속도가 느려 이야기에 대한 몰입과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

수한 도구로 제시된다(이경미, 2019; 김정주·류혜숙, 2010). 특히 이야기 이해력, 창의적 이야기 생성력, 문장 구성력 등의 발달에서는 교사가 낭독하거나 직접 읽어주는 인쇄 동화책이 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5) 효과에 대한 차이점 및 상이한 견해 분석

연구 결과 간에는 다소 상반된 해석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디지털 동화책의 시각적 자극이 주의력 분산을 초래하거나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김정주·류혜숙, 2010), 특히 인터랙티브 기능이 지나칠 경우 내용 집중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대로, 디지털 동화책이 제공하는 풍부한 피드백 기능이 아동의 언어 반응을 자극하고 자기주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권성민, 2010).

또한 디지털 동화책이 혼자 읽는 경우가 많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보호자나 교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효과가 크다고 본 연구도 존재한다(조한익 외, 2014). 즉, 단순히 매체의 유형보다 누가 함께 어떻게 읽는가(상호작용 맥락)가 언어발달에 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국내에서 수행된 20편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매체의 특성, 사용 방식, 상호작용의 유무,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 디지털 동화책의 효과: 흥미 유발과 어휘력 향상에 강점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디지털 동화책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김희동, 「디지털 동화책 활용이 유아의 어휘력과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디지털 동화책을 활용한 유아들이 실험 전보다 어휘력과 이야기 이해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시각적 자극과 음성 내레이

선, 터치 기능 등이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단어와 의미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또한 '권성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들려주기 방법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멀티미디어 동화책이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디지털 매체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상호작용적 요소를 통해 아동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인쇄 동화책의 효과: 이야기 구조 이해와 표현력에 강점

인쇄 동화책은 이야기 구조 이해, 창의적 이야기 구성력, 언어 표현력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김정주·류혜숙,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비교」'에서는 인쇄 동화책을 읽은 유아들이 이야기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이야기 재구성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쇄 동화책이 디지털 동화책보다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시각적 자극이 적어 이야기 내용에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은영·전유영,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인쇄 동화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사나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아동의 언어 사용 능력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상호작용의 중요성: 매체보다 '누구와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공통된 결론은, 매체의 종류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언어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조한익 외,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중심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의 효과」'에서는 부모와 함께 동화책을 읽은 유아들이 어휘력과 이야기 이해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보다,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언어 자극이 더 풍부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경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읽기가 유아의 언어발달과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디지털 동화책을 혼자 읽은 집단보다 교사가 읽어준 인쇄 동화책을 들은 집단의 언어발달과 사고력이 더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디지털 매체 자체보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4) 특수 아동 대상 연구: 반복적 읽기와 구조화된 활동이 효과적이다

언어지체 아동, 자폐 스펙트럼 아동, 발달지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반복적 읽기와 구조화된 질문 활동이 언어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박현옥·김정현, 「동화책 활용 언어중재가 자폐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폐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동화를 읽어주고 질문하는 활동을 통해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수 아동에게는 매체보다도 읽기 방식과 활동의 구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각각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어떤 매체가 더 '좋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디지털 동화책은 흥미 유발과 어휘력 향상에 강점을 가지며, 특히 언어 자극이 부족한 환경의 아동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인쇄 동화책은 이야기 구조 이해, 창의적 표현,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나 부모와 함께 읽으며 대화하고 질문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언어발달의 핵심이며, 매체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동화책

으로 흥미를 유도하고, 인쇄 동화책으로 이야기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교사와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언어적 상호작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모든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V. 결론

1. 결론

국내에서 수행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실험 설계와 대상, 매체 유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일관된 경향성이 도출된다.

첫째, 디지털 동화책은 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동화책이 제공하는 시청각 자극, 음성 내레이션, 터치 기능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단어와 의미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김희동(2020)에서는 디지털 동화책을 활용한 유아들이 실험 전보다 어휘력과 이야기 이해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권성민(2010)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동화책이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둘째, 인쇄 동화책은 이야기 구조 이해, 창의적 이야기 구성력, 언어 표현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인쇄 동화책이 디지털 동화책보다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시각적 자극이 적어 이야기 내용에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주, 류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인쇄 동화책을 읽은 유아들이 이야기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이야기 재구성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은영·전유영(2012)에서는 인쇄 동화책을 활용한 통합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밝

혔다.

셋째, 매체의 종류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언어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된다. 즉, 디지털 동화책이든 인쇄 동화책이든, 아동이 혼자 읽는 것보다 교사나 부모와 함께 읽으며 대화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언어 발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조한익 외(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동화책을 읽은 유아들이 어휘력과 이야기 이해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경미(2019)에서도 교사가 읽어준 인쇄 동화책을 들은 집단이 디지털 동화책을 혼자 읽은 집단보다 언어발달과 사고력에서 더 높은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넷째,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화책 활용이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반복적 읽기, 구조화된 질문, 이야기 재구성 활동 등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박현옥·김정현(2013)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동화를 읽어주고 질문하는 활동을 통해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강은영·강은희(2007)에서도 문장 완성 활동을 병행한 동화책 읽기가 문장 구성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동화책은 흥미 유발과 초기 어휘 학습에 강점을 가지며, 인쇄 동화책은 이야기 구조 이해와 정서적 공감, 창의적 표현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두 매체를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일관된 경향은 결국, 매체의 선택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와 함께 읽으며, 어떤 방식으로 언어 자극을 제공하느냐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과 인쇄 매체의 장점을 통합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읽기 환경을 조

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논의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방식으로 아동의 학습을 촉진한다. 본 논의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각 매체가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의 언어 발달 촉진 방식 차이

디지털 동화책은 멀티미디어 요소(애니메이션, 음성 지원, 터치 기능 등)를 포함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Gee, 2003). 특히, 음성 내레이션과 텍스트 강조 기능은 아동이 단어의 의미를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Takacs et al., 2015). 반면, 인쇄 동화책은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며, 부모와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언어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Neuman & Dickinson, 2001). 또한, Sénéchal et al.(1998)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과 함께 책을 읽으며 반복적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아동의 어휘력과 표현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인쇄 동화책이 언어적 사고 능력을 형성하는 데 더 유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문장 이해력과 이야기 구성 능력의 차이

디지털 동화책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아동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Kucirkova et al., 2017). 화면을 터치하면 인물의 행동을 강조하거나 특정 단어가 발음되는 방식은 아동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자동화된 기능이 많을 경우 아동이 능동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다(Parish-Morris et al., 2013). 반면, 인쇄 동화책은 아동이 직접 책을 넘기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Mol & Bus, 2011). 아동이 인쇄 동화책을 읽고 난 후,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문장을 만들어볼 경우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Sénéchal et al., 1998).

3)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사용의 차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언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Vygotsky(1978)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성인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쇄 동화책은 부모와 함께 읽으며 대화를 유도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언어 습득이 촉진될 수 있다(Neuman & Dickinson, 2001). 반면, 디지털 동화책은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다(Kucirkova et al., 2017). 디지털 환경이 지나치게 자동화될 경우, 아동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언어적 사고 능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ish-Morris et al., 2013).

4) 연구 결과의 일관된 경향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어떠한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각각의 방식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첫째, 디지털 동화책은 단기적인 어휘 습득에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아동이 빠르게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Gee, 2003). 둘째, 인쇄 동화책은 장기적인 언어 발달과 사고력 형성에 기여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Neuman & Dickinson, 2001). 셋째, 디지털 동화책은 시각적 요소가 풍부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지만, 지나치게 자동화될 경우 능동적인 언어 탐색이 제한될 수 있다 (Parish-Morris et al., 2013). 넷째, 인쇄 동화책은 아동이 직접 이야기를 구성하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Mol & Bus, 2011). 다섯째,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쇄 동화책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아동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Sénéchal et al., 1998).

3. 제언

결론적으로,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디지털 동화책을 활용하여 어휘 습득을 돕고, 인쇄 동화책을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와 부모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Neuman & Dickinson, 2001). 본 연구 결과는 언어 발달 교육에서 디지털 학습과 전통적 독서 활동을 병행하는 접근 방식이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형성에 가장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교육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et al., 2020).

참고문헌

강명실 (2010). 동화를 활용한 언어중재가 학령기 언어발달 지체 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은영, 강은희 (2007). 동화책 활용이 언어지체 아동의 문장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난청과 언어장애*, 30(1), 3-23.

권성민 (2010).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들려주기 방법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 연구* 9(3), 31-49.

김민하 (2015).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그림책의 인터랙션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6(42), 27-36.

김영본, 조정연 (2007). 이야기 구조 지도와 동화 활용이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6(4), 161-180.

김정주, 류혜숙 (2010). 디지털 동화책과 인쇄 동화책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비교. *아동문학교육연구*, 11(3), 33-52.

김현정, 박애자 (2007). 동화책 활용이 언어지체 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9(1), 241-263.

김혜옥 (2009) 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10(2), 25-46.

김희동 (2020) 디지털 동화책 활용이 유아의 어휘력과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4(4), 199-217.

박현옥, 김정현 (2013). 동화책 활용 언어중재가 자폐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1(4), 55-74.

산티아고순레길 (2024). 언어발달이론에서 상호작용주의 이론.

심경화, 임양미, 박은영 (2019).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4), 115-134.

유인숙, 손은남 (2007). 동화책 활용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난청과 언어장애*, 30(2), 3-23.

이경미 (2019).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읽기가 유아의 언어 발달과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숙, 전병운 (2015). 장애아동 대상 동화 활용 언어중재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6(2), 267-296.

이문옥 (2003).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그림책 활용 방안 연구. *유아교육연구*, 23(1), 101-120.

이연경, 김화수 (2022).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말 늦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12, 49-59.

이은영, 전유영 (2012).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32(2), 89-110.

이은주 (2014). 동화책 활용이 발달지체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원, 이소현 (2002). 동화책 활용이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7(2), 201-225.

정재후, 김명순 (2003). 전자동화 및 인쇄동화 유형과 읽기 이해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 이해 차이. *아동학회지*,

- 24(5), 15-26.
- 조한익, 김영숙, 조현실 (2014).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중심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의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1), 55-78.
- 한민경, 성시연, 최서진 (2016). 아동의 어휘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입력환경으로서의 동화책 어휘 연구: 용언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1(1), 98-110.
- 한유미 (2024). 디지털 시대의 그림책 제작과 활용. 서울: 학지사.
- 한춘숙 (2018). 디지털 매체 활용 동화 읽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과 연구*, 26(4), 77-95.
- Kim, & Lee (2017). Multimedia educat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Unpublished manuscript.
- Sweller, J (1994). Cognitive load theor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6(4), 351- 371.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86). *Thought and language*. MIT Press.
- Mayer, R. E (2001). *Multimedia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 J. P (2003). *What video games have to teach us about learning and literacy*. Palgrave Macmillan.
- Kucirkova, N., Messer, D., Critten, V., & Harwood, J (2017). Children's engagement with e-books: Insights from psychological theories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Educational Review*, 69(5), 515-530.
- Takacs, Z. K., Swart, E. K., & Bus, A. G (2015). Benefits and pitfalls of multimedia storybooks in promoting language development.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49, 125-160.
- Mol, S. E., & Bus, A. G (2011). To read or not to read: A meta-analysis of print exposure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Bulletin*, 137(2), 267-296.
- Parish-Morris, J., Mahajan, N., Hirsh-Pasek, K., Golinkoff, R. M., & Collins, M. F.(2013). Once upon a time: Parent-child dialogue and storybook reading in the digital age. *Mind, Brain, and Education*, 7(3), 200-211.
- Neuman, S. B., & Dickinson, D. K (2001).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Guilford Press.
- Sénéchal, M., LeFevre, J., Thomas, E. M., & Daley, K. E (1998). Differential effects of home literacy experiences on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1), 96-116.
- Korat, O., & Shamir, A (2012).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book reading on preschoolers' emergent literac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1), 116-126.
- Kim, H., Lee, J., & Lee, Y (2020). The effects of digital storytelling on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s. *Korea Science Journal*, 45(4), 367-385.
- Reinking, D (2005). Multimedia learning of reading comprehension: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texts.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7(3), 253-287.

Abstract

The Effects of Digital Picture Books and Printed Picture Book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Lee, Ruda(Joeuni Daycare Center Director) ·

Kim, Hyeon Jeong(Gang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synthesizes existing domestic research on the effects of digital picture books and printed picture books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aged five to seve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method. Focusing on a total of 20 domestic academic journal articles,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effects on various language abilities, including vocabulary development, story comprehension, narrative construction, and expressive skil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igital picture books are effective in enhancing vocabulary development through audiovisual stimulation and interactive features, whereas printed picture books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understanding narrative structure and fostering creative language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study confirms that factors such as the mode of interaction with teachers or parents and the degree of structure in reading activitie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language development than the type of medium itself.

Additionally, repetitive reading and question-prompting strategies were found to provide positive language stimulation across diverse groups of young children, including those with special needs. Rather than comparing the two media in a dichotomous manner,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ploring complementary approaches to their use and highlights the need for interaction-centered language education strategies.

Keywords: Digital picture Books, Printed picture books,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 필자 정보

이루다: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실천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유아 발달 및 놀이 중심 교육, 창의성과 인성교육, 유아교육 정책 및 제도 연구 등이다. 특히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 기반 교수·학습 방법, 창의적 사고와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교신저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인성교육과 도덕철학, 정의론, 분석적 교육철학 분야이다.

*E-mail: kimhj@gwnu.ac.kr

보건복지연구

인쇄일: 2025년 12월 29일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소장 이세원

편집인: 학술부장 장수정

기획부장 유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 박진이

위원 허만섭

간사 박아름

발행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주 소: 264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전 화: 033-760-8907

팩 스: 033-760-8861

이메일: pr0489@gwnu.ac.kr

출판등록: 2016년 10월 4일 제 419-2016-000024호

ISSN: 2508-6529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